

제2556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박일평 LG CTO “라이벌과 협력 ‘뉴노멀’ 선도” 18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檢 ‘살인죄’ 적용 19

코스피(13일) 3148.29 (+22.34P)  
코스닥 979.13 (+5.41P)  
환율(달러당 원화) 1095.10 (-4.80원)  
금리(국고채 3년물) 0.979% (+0.003%P)

정량평가로 한전주의 만연...용어만 바꾼 법안 583개

## “부실법안 의원 감점제 도입하자”

### ‘20·21대 국회 발의 법안’ 실태 조사

‘발의 법안 수 16대→20대 10배 급증’  
‘발의 법안 처리비율 16대→20대 30% P 급감’

‘20·21대 단순 용어교체 법안 발의 600여 건’

이는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 및 처리비율의 변화, 그리고 20·21대 국회에서 단순히 일부 단어만 변경해 재발의된 법안 수다.

16대 국회 대비 20대 국회 법안 수는 10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그동안 통과된 법안 비율은 오히려 눈에 띄게 줄었다. 20·21대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 단어만 교체해 발의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의원 이름만 달리해서 반복 발의하는 등 거품이 많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4면

13일 이투데이가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순 용어만 교체해 발의된 법안은 총 583건으로 집계됐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꾼 사례도 있다.

또 같은 당내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의원 이름만 달리해 발의된 사례들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킬 만한 이슈에 편승해 순식간에 법안 발의 건이 급증하는 사례도 많다. 8일 국회 문턱을 넘긴 이른바 ‘정인이법’이 대표적 사례다. 정인이법은 단 며칠 만에 수십건이 쏟아졌다.

이렇게까지 우후죽순, 실효성 없는 법안들이 난무·폭증하게 된 배경은 다양하다. 특히 당내에서 공천 평가에 법안 발의 수를 반영하는 등 규정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 평가기준은 재선을 염두에 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다수 법안 발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만든다.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좋은 국회’라는 평가 기준도 한몫한다.

결과적으로 매 국회 발의된 법안 수는 빠른 속도로 급증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미래연구원이 개최한 ‘입법의 민주적 권위 실현 방안 연구’를 위한 세미나에서

16대 → 20대 발의 10배 폭증  
법안처리율 70%서 38%로 ‘뚝’  
입법경쟁·면피용에 공천 평가 활용

북경 서강대 교수가 발표한 ‘입법발의 폭증 미스터리’ 보고서에 따르면, 16대 법안 발의 수는 2507건이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20대 국회 발의 수는 2만4141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발의 법안

처리비율은 70%→38%로 급감했다.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문제 해결책으로 미국 등 해외 사례도 벤치마킹해 ‘부실 법안 감점제’를 2월 중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미래연구원 관계자는 “부실 법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감점제를 통해 해당 의원 평가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윤호 기자 uk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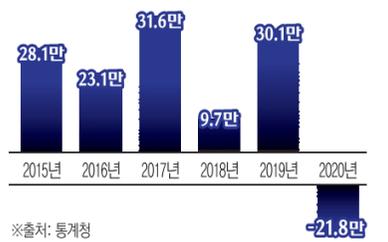


### 실업급여 신청 급증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으로 기록됐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연합뉴스

### 연간 취업자 증감 규모

(단위: 명, 전년 대비)



### 코로나發 ‘고용 참사’ 재정일자리 조기집행 (1분기)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62만8000명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취업자 수도 21만8000명 줄어 외환위기(1998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보였다. ▶관련기사 3면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265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2만8000명(2.3%)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21년여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9.1%로 1.7%포인트(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3%로 1.8%P 각각 내렸다. 고용률은 청년층(15~29세, 41.3%, 2.5%P ↓)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했다.

### 작년 취업자 21.8만명 줄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직접 일자리 83만명 채용 계획

이번 고용지표에는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격상(12월 8일) 영향과 전년 12월 취업자 급증(51만6000명)에 따른 기저효과가 함께 반영됐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1만3000명), 도·소매업(-19만7000명), 제조업(-11만명)에서,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35만1000명) 감소가 두드러졌다. 실업률은 4.1%로 0.7%P 올랐다.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1.0%P 이상 급등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도 21만8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15~64세 고용률은 65.9%로 0.9%P 내렸으며, 실업률은 4.0%로 0.2%P 올랐다. 실업자는 110만8000명으로 4만5000명 늘며 통계기준이 개편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기준 한국의 취업자 감소율은 0.7%로 독일(-0.9%), 호주(-1.6%), 캐나다(-5.4%), 미국(-6.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고용지표 악화가 취약계층에 집중된 점은 부담이다. 산업별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합계 -31만9000명)에서,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31만3000명)가 급감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올해 직접일자리 공급분의 80%(83만명)를 1분기 중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층과 여성에 대해선 별도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TV 보기 불편해진다

###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방통위, 6월 시행령 공포

정부가 방송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면서 시청자의 TV 시청 피로도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또한,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완화할 방침이어서 교양과 시사, 보도, 정보 전달 등을 담은 프로그램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해 방송 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 매체 간 광고 총량, 기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5~60분 분량의 지상파 프로그램은 1회(회당 1분), 60

~90분 분량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기존 유료방송·DMB 등과 같은 기준으로 바뀌는 것.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간이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최대 18%에서 20%로 늘어난다. 또 하루평균 광고 시간 역시 15%에서 17%로 조정된다.

현재 방송법상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어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하고 ‘썸수 중간광고’로 불리는 분리편성광고(PCM)를 넣는 편법을 쓰고 있다.

시청권 보호와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PCM과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 마련,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 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시청자 영향평가도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3월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임상 2상 성공 ‘코로나 치료제’ 이르면 이달 상용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 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상용화가 가능해진다.

셀트리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맵-CT-P59)의 임상 2상에서 효과를 확인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임종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오후 진행된 ‘2021 하이원 신약개발 심포지엄’에서 “렉키로나주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발생률을 위약군 대비 전체 환자에서 54%, 50세 이상 중증 환자에서 68% 감소시켰다”면서 “회복 기간은 위약군 대비 3일 이상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채취한 다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와 재조합해 개발한 치료제다. 지속적인 항체 공급을 하지 않아도 세포 배양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유사한 치료제로는 미국의 제약사 릴리가 개발한 ‘LY-CoV555’와 리제네론이 개발한 ‘REGN-COV



지난달 22일 언론에 공개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

2’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빠른 허가 승인을 위해 심사 기간을 최대 40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렉키로나주는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는 허가 여부가 판가름 나야 하지만, 정부는 이미 1월 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가 된다. 이후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하면 정식 품목허가 단계를 밟게 된다.

성공적인 임상 2상 데이터를 내놓으면 해외 긴급사용승인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혜은 기자 euna@

# SKT,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가격 경쟁 본격화

30% 저렴 온라인용 '엔택트 플랜' 알뜰폰 도매 대가 인하 조건 출시 일반 중저가 요금제 추가 계획도

SK텔레콤(SKTEL)이 15일 월 3만 원대의 5G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한다.

13일 과기정통부는 SKTEL이 신고한 LTE 3종, 5G 3종 온라인 요금제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5G 온라인 요금제는 월정액 3만8000원에 9GB+1Mbps, 5만2000원에 200GB+5Mbps, 6만2000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LTE 온라인 요금제는 월정액 2만2000원에 데이터 제공량이 1.8GB, 3만5000원 5GB+1Mbps, 4만8000원에 100GB+5Mbps이다. 그간 5G 온라인 요금제는 KT와 LG유플러스가 출시했고, SKTEL로서는 첫 5G 온라인 요금제다.

◇신규 도매 대가 인하, 늦어도 2월 = SKTEL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요금제를 과

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존 5G 요금제에서 30%가량 인하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온라인 요금제 특성상 단말기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SKTEL이 내놓은 요금제를 놓고 고심했다. SKTEL이 내놓은 요금제는 기존 5G 요금제보다 30% 저렴해 정부가 활성화를 주도한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 현행 유보신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을 정부가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경쟁 저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시 반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 대가 인하'를 조건으로 해당 요금제를 반려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EL은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 대가를 인하해 제

엔택트 플랜		* 결합 및 약정 할인 월정액에 선반영	
	월정액(원)	음성·문자	제공량
5G엔택트62	62,000	기본제공	완전무제한
5G엔택트52	52,000	(영상·부가통화 300분)	200GB+5Mbps
5G엔택트38	38,000		9GB+1Mbps
LTE엔택트48	48,000	기본제공	100GB+5Mbps
LTE엔택트35	35,000	(영상·부가통화 300분)	5GB+1Mbps
LTE엔택트22	22,000	기본제공	1.8GB
		(영상·부가통화 100분)	

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요금제에 대한 도매 대가 인하 시점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2월로 본다"며 "SKTEL은 신규 요금제 출시일을 이달 중순, 도매 대가 인하 시점을 그 즉시인 2월 내로 계획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SKTEL은 알뜰폰망 도매제공의 무사업자로 매년 정부와 협의해 도매 대가를 산정한다. 지난해 11월 협상 결과 SKTEL은 LTE 주력 요금제 도매 대가를 0.5~2%P

내렸고,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MB당 2.95원에서 2.28원으로, 음성은 분당 18.43원에서 10.61원으로 인하됐다. 5G 요금제 2종의 수익배분 도매 대가도 인하됐다.

2월께 새로 인하해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이번 신규 요금제 출시에 대한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SKTEL의 5G 도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고시를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

다. 종전에는 5G 도매 제공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다만 SKTEL은 지난해 자율적으로 5G 요금제 2종의 수익배분 도매 대가를 인하해 출시했다.

◇SKTEL, 추가 5G 중저가 요금 계획 = SKTEL은 온라인 전용 요금제뿐 아니라 일반적인 5G 중저가 요금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요금제에서 데이터 9~200GB 사이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 어떤 요금제를 낼지는 SKTEL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EL의 이번 요금제 출시로 5G 요금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KT는 지난해 10월 5G 중저가 요금제를 내놨고, 올해 들어서는 LG유플러스가 공격적으로 5G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10일 가족을 비롯해 지인까지 결합 가능한 5G 요금제를 선보였다. 해당 요금제는 4인이 결합하면 인당 3만 원대에 5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시동정지 결합 벤츠 '레몬법' 1호... 렌터카·리스차도 적용될 듯

"반복 고장 상품성 훼손" 인정... "신차 교환·환불" 판정

신차 구매 후 같은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또는 수입사)가 이를 교환·환불해 주도록 한 이른바 '자동차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향후 이 같은 판단 근거와 사례가 쌓이고 레몬법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 유사 판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수입차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소유주 A 씨가 제기한 반복된 고장을 '신차 결합'으로 인정, 수입사에 '동일 신

차 교환' 판정을 내렸다.

2019년 1월 관련법 시행령이 시작된 이후 교환 판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 위원회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차주 A 씨는 이른바 '스톱&고' 시스템의 고장이 반복되자 신차 교환을 요구했다. 도심 주행 때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장치다. 위원회는 "안전과 무관하지만, 상품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신차 교환·환불을 명시한 이른바 레몬법은 2018년 BMW 화재사고를 계기

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다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지난해 초에는 "시행 1년 동안 관련법 적용 사례가 0건"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나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입장은 다르다. 위원회 관계자는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청구인(소유주)과 피청구인(제조사)이 상호 합의하면 그 즉시 위원회의 중재가 중단된다"며 "그동안 최종 판정이 0건이었을 뿐, 그 뒤에는 30여 건의 교환·환불 사례가 존재했다. 그만큼 법 개정의 순효과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교환·환불 판정 사례는 더 늘어

날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의 전망이다. 이번처럼 '상품성의 현저한 훼손'이라는 사례와 기준이 나온 만큼, 유사한 결합 또는 고장에 대한 판정이 당위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레몬법 신청 자격도 확대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수입차 구매자 가운데 약 38%가 법인 구매다. 여기에는 장기렌터카와 리스차 등도 포함된다. 이런 차의 소유주는 그동안 "법적 소유주가 아니다"는 이유로 교환·환불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 정지권이 관련법 개정에서 장기렌터카와 리스차 계약자도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

#### 대상

- 비사업용 자동차
- 1대만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 기한

- 신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 요건

- 교환 및 환불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로 판매된 신차
- 안전에 대한 우려, 또는 상품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차
- 중대한 하자 2회 반복, 일반 하자 3회 반복
-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 기타

- 장기렌터카와 리스차, 법인차도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
- 2021년 1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2대 이상 소유한 사업자의 법인용 자동차 포함)



모두의 건강도  
서로의 거리도

더 가까워질  
내일을 기대합니다

# 베콤씨<sup>®</sup>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광고심의필: 2020-1560-003205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수출감소·거리두기 여파 청년·여성 일자리 '초토화'

## IMF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피해계층은 청년층(15~29세)이었다.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는 제조업에 타격을 줘 기업들의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부진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증발시켰다.

13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21만 6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감소분(21만 8000명)의 대부분이다. 도·소매업은 감소 폭이 전년 6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확대됐고, 숙박·음식점업은 6만 1000명 증가에서 15만 9000명 감소로 전환됐다. 두 산업의 부진으로 임시직(고용형태별) 감소폭은 5만 6000명에서 31만 3000명으로 확대됐다.

장기 부진에서 벗어나 지난해 1분기 반등했던 제조업 취업자도 5만 3000명 감소로 꺾였다. 정동명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 취업자는 상반기에 주요국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하반기 들어 수출이나 제조업 관련 지표가 호전됐지만,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적 성격을 띠다 보니 반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제조업의 부진은 연령계층별로 청년층, 성별로 여성

## '수요 위축' 제조업 신규채용 줄고 대면 서비스업 부진에 알바 증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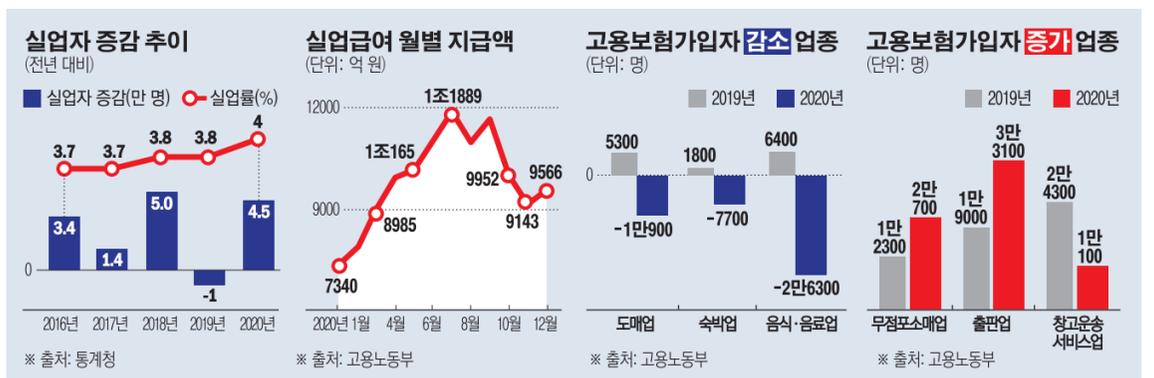
### "1분기 중 예산 5.1조 조기 집행 피해계층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줬다. 청년층은 2019년 인구 감소(8만 8000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4만 1000명 늘었으나, 올해에는 취업자 감소(18만 3000명)가 인구 감소(14만 9000명)를 웃돌았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사라지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중단·연기되면서 실업률은 오르고, 고용률은 내리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졌다.

성별로는 남성(-8만 2000명)보다 여성(-13만 7000명)에게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을 겪으면서 서비스업(임시직)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마련 =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공급을 앞당기고, 1분기 중 청년·여성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 충격이 가장 큰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



하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사업 80% (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 (2만 8000명)를 1분기 중 집중 채용하고,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021년 2만 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의 38% (5조 1000억 원)를 1분기 중 조기 집행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범 경제중대본 대변인(기재부 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취업 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에게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도 지원하겠다"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는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고용장려금 신규 지급 등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투자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실제 국민이 '일자리 사정'이 나아졌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 신산업,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특히 벤처기업은 2019년 신규 고용 창출 측면에서 4대 대기업의 약 5배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고용 창출의 핵심축으로 성장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 중이므로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4대 전략시장별 특성 및 진출전략

<b>선진 성장시장</b> (미국, EU 등)	(전망)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등 투자 확대 (진출전략) 공동R&D·투자 등 협력 확대, 민자발전 활용 수주 확대
<b>신흥 성장시장</b> (동남아, 중남미 등)	(전망) 전력수요 증가, 풍부한 자원 등으로 시장성장 가능성 높음 (진출전략) 그린뉴딜 ODA 연계, 다자개발은행(MDB) 활용 등
<b>분산전원 유행시장</b> (인나, 필리핀 등)	(전망) ESS 연계 소규모 도서지역의 독립계통형 시장 형성 (진출전략) 신재생+계통설비 패키지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추진
<b>에너지 다각화시장</b> (사우디, UAE 등)	(전망) 풍부한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진출전략) 태양광 연계 담수화 관련 설비 진출, R&D협력 등

# "K뉴딜 글로벌 진출 30조 지원 5년내 디지털 수출 274조 달성"

## 민관합동 TF 설치

정부가 'K뉴딜' 수출을 총력 지원한다. 탄소 중립, 신재생 등 그린 뉴딜 수출·수주를 위해 총 30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며 민관합동 그린 뉴딜 전담반(TF)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전략을 통해 그린 프로젝트의 해외 수주를 2025년까지 30GW로 확대하고, 디지털 수출액은 2500억 달러(한화로 274조 원)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두 개 축을 중심으로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 7개 대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30조 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해주며 대출 한도를 최대 10%포인트(P) 늘린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엔 0.3%, 0.5%의 추가 금리 혜택을 준다.

수주 전 해외 발주처에 우리 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 한도를 선제 공하고 수주 후엔 생산시설 확충, 운전자

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 비중은 35%에서 40% 늘려 해외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 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코트라 무역관 내 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도 설치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D·N·A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 진출에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또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열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2260억 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 300억 원을 신설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디지털 뉴딜 해외 진출 기업은 금리 우대한다. 고성장 디지털 기업에 최대 100억 원의 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을 제공한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좋은 음악으로 당신의 귀가 행복해지고  
좋은 음식으로 당신의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그림으로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듯

앞으로의 투자는  
당신의 삶을 채워주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3968호(2020-08-24~2021-08-2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부실 법안發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 처리율은 ‘반토막’

## ‘20·21대 국회 발의 법안’ 실태 조사

‘단순 용어교체 법안’은 ‘입법 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순화 혹은 부연설명을 붙이는 식이다.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꾸는 예도 있다. 이처럼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법안 내용 중 몇몇 단어만 교체해 새롭게 발의하는 부실 법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이투데이가 20·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단순 용어만 교체한 법안은 총 58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상임위 대안과 정부안, 법률 전체를 순화시킨 법안은 제외했다.

대표발의 의원별로 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72건,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이 6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이찬열 전 국민의힘 의원 15건,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현 민주당 의원이 각 13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혁·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각 12건, 권철승·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각 11건으로 나타났다.

10건 이하 발의 의원은 총 52명이다. 주목할 점은 이 중 18명이 민주당 초선의원이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법률 순화에 동참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질보다 양을 늘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률 순화는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주로 ‘용어교체 법안’ 형태로 발의해 왔다.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필요한 한자의 한글화와 용어 및 표현 순화, 부연설명 등을 법안 모두 또는 일부 단어에 첨부하는 경우다.

이들때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에 각기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부분 한자로 이뤄진 조문들을 모두 한글로 바꾸고 부자연스러운 용어나 문장구조를 순화시

켰다.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병합돼 11월 처리됐다.

하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하나 혹은 몇 개 단어만 바꾼 단순 용어교체 사례가 대부분이다. ‘제증명서’를 ‘각종 증명서’로 바꾼 자격기본법 개정안이나 ‘차주’를 ‘차용인’으로 바꾼 공공차량관리기금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 예다. 해당 두 법안은 각각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현역 박광온 의원이 발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용어교체 법안 남발 방지를 위한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 초선인 이규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 용어·표현 정비를 전담하는 소위를 뒤 일괄 개정안을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 의했다.



20·21대 국회 ‘단순 용어교체’ 법안 발의 현황

대표발의 의원	건수(건)
박광온(20·21대)	84
전현희(21대)	72
황주홍(21대)	61
이찬열(21대)	15
심재철(21대), 이상현(20·21대)	13
김성원(20·21대), 이수혁(21대), 손혜원(21대)	12
권철승(20·21대), 정청래(21대)	11
외 52명(민주당 21대 국회 초선 18명)	10 이하
총계	583

단순 단어 교체뿐 아니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쏟아지는 경우도 문제다. 심지어 같은 당내에서 의원 이름만 달리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하는 사례들도 많다.

특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킬만한 이슈에 편승해 발의한 법안도 많다.

8일 국회 문턱을 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의 9건을 병합 심의해 나온 대안이다. 이 중 6건은 지난해 나온 법안이고 나머지 3건은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2월 이후인 5월 하루 안에 국민의힘 소속 김병욱·김정재 의원이 발의했다.

대안에 포함된 3건 외에도 5일부터 시행될 민주당의 노용래,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 등이 12건을 쏟아냈다. 아동학대 분리조사 및 응급조치 강화와 처벌 상향 등 8일 통과된 ‘정인이법’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다.

지난달 13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한 달 전부터 줄줄이 발의됐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으로 대부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윤호 기자 uknow@

## “법안 발의 몇 건 했나요?”... 입법 남용 부른 공천률

### 법안 발의 왜 늘었나

오랜 권위주의·민주화 과정 영향 낮아진 공동 발의 문턱도 한몫 미래, 부실법안 감점제 검토

**부실 법안 급증 원인 및 대안**

**급증 원인**

- 1 일제강점기, 군사정부 등 오랜 권위주의 체제에 따른 과거사 관련 입법 필요성 제기
- 2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시장 규율 및 사회 안전망 관련 입법 필요성 제기
- 3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입법 요구 증가
- 4 공동발의 최소인원 기준 완화 (2003년 20명 → 10명 개정)
- 5 '의원발의 수-공천 기준'에 따른 '쪼개기 법안 발의', '중복 발의' 등 난무
- 6 입법활동 평가 기준 '법안 처리율'에 따른 법안 독려 분위기

**대안**

- 1 미래연구원, 부실법안 감점제 검토 및 해외 평가기준 벤치마킹
- 2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지속적인 국회 감시활동

※출처: 국회 미래연구원 외

국회 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건수의 폭발적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매 국회의가 거듭될수록 의원들의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국회 내부 시스템, 더 나아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정치적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오랜 권위주의와 민주화 과정에서 법안 급증 현상이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국회미래연구원 이 지난해 개최한 ‘입법의 민주적 권위 실현 방안 연구’를 위한 세미나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박정희-전두환 군사정부 억압 등 오랜 권위주의 체제에 따른 과거사 관련 입법,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시장 규율 및 사회 안전망 관련 입법 등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 이후엔 시민사회의 입법 요구가 증가하며 정부, 원내정당들의 책임감이 커졌다”며 “과거 1인 보스 중심의 정당운영체제와 달리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별 의원 입법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공동발의 문턱이 낮아진 점도 한몫했다. 실제 2003년 공동발의 최소인원 기준이 20명에서 10명으로 개정된 이후 의원들의 법안 발의 비율이 급증했다. 16대엔 공동발의 건수가 전체 대비 8.7%에 불과했지만 20대 들어선 48.5%로 5배 이상 늘었다.

다소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 ‘의원발의

수-공천 기준’이라는 규정이 ‘단순 용어 변경 발의’, ‘쪼개기 법안 발의’, ‘중복 발의’ 등의 급증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재선을 원하는 국회의원 처지에서는 다수 법안 발의가 곧 공천 및 당선 가능성에 대한 보험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한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안 발의 수가 공천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준이 되다 보니, 전문가인 우리도 부실 법안 발의에 제동을 걸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평가 기준도 문제다. 그동안 무조건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좋은 국회라는 기준, 즉 법안 처리율만으로 입법 활동을 평가해왔다. 이는 결국 △짧은 민주당의 역사 △불안정한 정당 제도 등에 기인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 이정감시센터는 1994년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해왔다.

18대 국회부터는 의정활동 평가지수를 개발 등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 이후엔 더 나은 입법 제고를 위해 평가지수 개발을 중단하고 정성평가로 전환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의원활동 평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법안 발의

건수의 양적 증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거나,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 해결하기 위해 미래연구원은 ‘입법 남용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대안 중 하나인 부실법안 감점제를 검토 중이다. 감점제가 도입될 경우, 부실법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원 평가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래연구원은 미국 등 해외 법안평가지표를 벤치마킹해 부실법안을 포착하는 방안도 도출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 반영하기까지 어려움도 많다. 박상훈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평가를 받는 여야 의원 모두 인정할 만한 권위와 중립성을 갖는 기관을 마련하기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여야 의원들이 외부 입법평가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 제 역할을 하는 입법평가기관 마련은 어렵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법안의 임기만료 폐기 원인으로 구체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 교수는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안이 폐기된 경우부터 소관위 심의를 거쳤으나 갈등이 심해 의결에 이르지 못해 폐기된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 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 해외사례 살펴보니

우리나라에선 입법 비효율이 국회의 해묵은 문제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철저한 법안 평가로 입법 효율화를 이루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입법부 소속 4대 입법보조기관을 두고 있다. GAO(연방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와 CBO(의회 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RS(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TA(기술평가원,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등이다. 각 기관에 따르면

GAO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 예산을 확장·조정하며 예산·회계 법률 해석을 맡는다. 예산 전문가 250여 명으로 이뤄진 CBO는 주요 심의 대상인 의회 산출 예산안을 위한 자료 조사·수집을 한다. CRS는 여러 분야 전문가 800여 명이 의회 정책이나 법안에 영향을 끼치는 보고서를 마련한다. OTA는 효율적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기술적 분석을 의회에 제공하는다.

미 의회는 이 같은 4대 입법보조기관의 평가에다 재정을 요하는 입법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페이그(PAY-GO) 원칙도 준용하고 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보조기관의 보고서와 의견을 근거로 의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예산·법안의 약 80%가 폐기된다”고 부연했다.

유럽연합(EU)은 법안 발의 전부터 잠재적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기구인

EPRS(유럽의회조사처,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를 두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PRS는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량적 경제비용과 사회·경제적 영향, 기본권 영향 등을 구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낸다. 또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도 국내에서 사전입법영향평가를 도입해 법안 발의 전부터 입법 영향을 미리 분석한다.

우리나라 또한 국회에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각 상임위에 소속된 전문위원회와 입법조사관들이 예산·입법 영향평가를 한다. 하지만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사전평가도 받지 않는다. 특히

쟁점법안의 경우 영향평가는 힘을 잃는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비쟁점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 대개 존중되지만, 쟁점 법안은 정략에 따라 한쪽이 다수결로 밀어붙이기 일쑤”라며 “한 예로 ‘민식이법’은 소위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전문위원이 동의했음에도 여당이 관철시켰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유럽처럼 발의 전 사전평가가 요망되지만, 그간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입법권 침해’라는 논리에 막혀왔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도 선진국과 같은 권위 있는 입법평가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기관장과 들어가는 예산, 분석 방향 등에서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권위를 세우긴 쉽지 않다”고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 국내도 입법조사관 등 있지만 의원 입법 사전평가 안 받아 쟁점법안 정략 따라 다수결로

#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 두루뭉술... '이중 처벌' 지적도

처벌기준 될 안전조항 명시 안돼  
산안법 개정안과 겹쳐 수사 중복

'50인 미만' 사업장 3년간 유예  
인력 빼거나 분리등록 폼수 가능

산업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산재를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곳곳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12월 11일, 고(故) 김용균 씨는 충남 태안 사업장에서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 이후 산업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8년에는 971명, 2019년에는 855명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대 국회 때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 중심에 섰다. 이후 국회에선 논의가 진행됐고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지만 자세히 보면 문제점이 곳곳에 존재한다.

먼저 용어 정의와 규정들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추상적 표현이 많고 모호한 개념들이 많다"며 "준법 의지가 있고 사문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조차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법 조항을 들여다보면 일부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담겼지만 사업주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했다. 예를 들어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항'을 들여다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이 없어 사업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 보니 처벌 조항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의무 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처벌한다고 하면 법에 정확히 명문화가 돼 있어야 하는데 두루뭉술 넘어갔다"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안법과 겹치는 부분도 문제다. 앞서 개정된 산안법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명시되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에 개인 처벌 조항이 추가되면서 수사 과정도 중복되고 이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가장 논란이 된 제2장 제3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부칙 제1조 50명 미만 사업장 유예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79.8%에 해당한다. 587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유예하면 3년간 전체 사업장 중 1.2%에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어 논

란이 일기도 했다.

물론 중대재해법이 공포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다는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이카데미 주임교수는 "(해당 기업도) 부담하게 해야 했다"며 "그 부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그런 곳에 세금이 쓰이는 게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예외 조항을 활용해 눈속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5명을 조금 넘는 사업장은 근무자 수를 줄여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할 수 있다. 50인이 넘는 사업장 역시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나눠 등록하면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보완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우 교수는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다른 안전관계법이 있다"며 "그걸 실효성 있고 정교하게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강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내용이 굉장히 미흡하다"며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란 조항

	내용	문제점
의무 규정	제4조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의무 이행 어떻게 판단할지 불분명
사망사고 처벌	개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개인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 모호한 의무규정으로 과한 처벌 우려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기업들이 처벌 피하기 위해 근로자 수 줄임 우려

김종철(왼쪽 두 번째) 정의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근로자 추락 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앞서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산소 배관에서 산소가 새어나오며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숨진 바 있다. 사진제공 정의당

## “정부 안전의무 지침 나와야 대응 가능”

중소기업 불확실성 가중  
전문가들 “정부차원 교육 필요  
기업 안전담당자엔 인센티브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시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지 며칠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 기업들에 어떻게 준비하라고 조언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중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처벌 여부를 가리는 안전 조치 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침을 제시하면 안전 예방 투자 등 기업의 안전 조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인데 현재 지침이 없다 보니 전문가로서 기업들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가 어

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업들이 안전 조치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대통령 공포 후 소관 부처로 이관되면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정부가 지침 마련과 더불어 법 준수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재 사고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맞는 부합하는 '재해예방 기법' 개발·보급을 주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산업안전 교육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참가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관련 업무 부담이 커진 기업의 산업안전 담당자에게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 의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진우 교수는 “근로자는 단지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안전규율도 이행해야 할 주체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회사가 정하는 안전조치에 대한 직무규율을 잘 이행하는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교수는 “근로자로서는 산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업무 숙련 훈련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며 “숙련도가 높을수록 사고 빈도는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박준상 기자 jooon@

능력티켓 한장으로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 유통플랫폼 압박 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 이낙연 "자영업자 마진을 인상" 與, 생활물류법·상생협력법 준비 규제 카드로 '자발적 협조' 유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이익공유제의 주요 타깃이 유통 플랫폼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와 자영업 영업손실 보상제를 제안하며 타깃이 유통플랫폼임을 서서히 드러내왔다.

13일 이낙연 대표는 TF 발족 소식을 전하면서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언급했다.

앞서 11일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영업 영업손실 보상제 운을 띄웠다. 구체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발언부터 나온 것이다.

12일에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나서 이익공유제 본격 논의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 발족 계획을 밝혔다. 홍 의장은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는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하다"며 비대면 산업을 겨냥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통 플랫폼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예시로 지목하기도 했고 민주당이 최근 플랫폼 기업 관

계자들을 만나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를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TF가 마련할 이익공유제의 초점은 유통 플랫폼에 맞춰질 전망이다. 8일 통과된 생활물류법에 이어 신영대 의원이 준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으로 규제를 강화시키는 흐름을 이용해 유통플랫폼을 압박하는 형태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도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강화 카드를 흔들 어 압박하면 유통 플랫폼이 스스로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 생활물류법에 따른 운송수단 제한의 경우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법률해

석에 따라 입장 전환은 가능하다.

또 신 의원의 상생협력법은 물류창고를 둔 온라인플랫폼에 지역상공인들과 영업 시간 및 품목을 협의토록 강제하는 내용이 라 이커머스는 물론 배달의민족 B마트 사업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던 유통 플랫폼을 쥐어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로 뿔이 난 자영업자들을 달래는 배경에는 역시 선거가 있다. 4월 재보궐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모여 집단시위는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내는 상황이라서다. 방역 상황이 여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완화하긴 어려우니 재정에 더해 기업 손목도 비틀어 보상을 마련해서 달래려는 것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 김정은 "핵억제력 강화"

#### 8차 당대회서 군사력 강조 남한·美 향한 메시지 없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13일 8차 당대회를 마무리하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다만, 직접적으로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대남 및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전날 김정은 총비서가 결론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인민군대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해 그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 사태에도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 기강을 다잡을 것을 역설했다.

그는 "강력한 교양과 규율을 앞세워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부담행위, 온갖 범죄 행위들을 견결히 억제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경제 분야 또한 통일적인 지휘를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 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당적,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 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개최한 당대회는 12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1970년 5차 당대회(12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대회 일정이다.

김 총비서는 당대회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비대면 대화"를 제의 받았으나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나경원 "독하고 섬세하게 서울 재건축"

### 10년 만에 시장 재도전... 코로나 대응·기본소득 공약 제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이 10년 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재도전에 나섰다. 나 전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해밀턴 호텔 뒤편 먹자골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마음을 보듬고, 서울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이태원의 한산한 거리를 출마장소로 택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시를 재건축해야 한다"며 "잃어버린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독한 마음가짐으로 서울에서부터 민주당과의 섬세한 협치를 보여드리겠다"고 출마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코로나 위기 대응책 △기본소득제 △부동산 대책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이제 방역 속에서의 일상을 찾아야 한다"며 "서울 전역에 백신접종 셔틀버스를 운영해 우리 집 앞에서 백신을 맞게 하고, 중증환자 병상과 의료 인력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들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 채용'을 실시해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도 제시했다. 그는 "서울엔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며 6조 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자금'을 설치해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대출해 줄 것을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나 전 의원은 "응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며 "가로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택, 산업, 양질의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먹자골목 인근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정부의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해 부분별한 공시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내

용도 언급했다. 나 전 의원은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다"면서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아권을 대표할 수 있겠냐"며 단호하게 말했다. 허유미 기자 jscs508@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COVERSTORY 2021 뉴 시니어 라이프

PART1. 2021년 시니어가 알아야 할 트렌드 10  
PART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탄력적 백신' 만들기  
PART3. PISA로 노후 대비하기  
PART4. 뉴노멀 시니어 랜선으로 리부트  
PART5. 시니어 돌봄의 민낯  
PART6.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다

전통 정원의 멋 김주목 화가 오지 나와 독하고 섬세하게 집

슬기로운 연금생활 정년 퇴직자의 불안한 노후자금 해법 찾기

토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퇴직금은 10년 전체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은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50+ 워라벨 90년대생과 슬기롭게 일하는 방법

아무튼 막 악사가 알려주는 악곡 사용설명서

COVERSTORY 2021 뉴 시니어 라이프

PART1. 2021년 시니어가 알아야 할 트렌드 10  
PART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탄력적 백신' 만들기  
PART3. PISA로 노후 대비하기  
PART4. 뉴노멀 시니어 랜선으로 리부트  
PART5. 시니어 돌봄의 민낯  
PART6.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다

한 번의 인생, 모험으로 답하다 티투아트 조영진

책임감 있는 자유 누리는, 계절의 나이를 살다 가수 겸 청진과 의사 겸 작가 김경기

'낙숫물이 비워져 구멍을 내듯 청진과의 삶 살아갈 것' 변호사 원영섭

재미있는 성 인문학 시사잡춘

최근 인문학이 대세다. 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따서 유행이다. 그런데 성인 한 인문학이 또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종족을 남기고, 늙고 죽어가는 이야기는 다 성에 있다. 성을 한자로는 '행'이라 표기하는데 어찌 이렇게 적합한 표현을 찾았는지 놀랄만하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성을 재미있게 풀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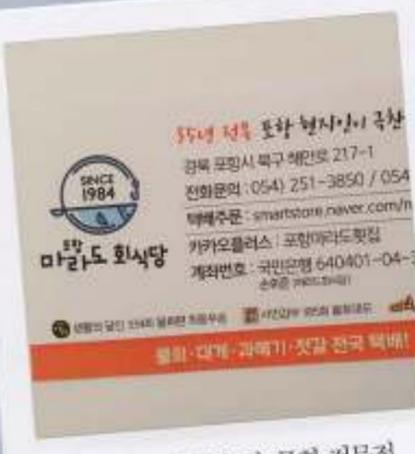
리액, 그때는 그랬지 "급하면 전화로 원고를 불렀다"

왕년 전성기에 누렸던 최고의 명동답거나 예피소드 시간을 뒤돌려본 그 시절, 우리 때는 이것까지도 해봤어, 나도 그랬어, 그랬자라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미담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요!

# 우리동네 가게를 소개합니다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편 >



35년 전통의 건강한 회, 물회 전문점  
**마라도회식당**  
포항시 북구 해안로 217-1 | 0507-1333-3850



부부의 정성스러운 손맛  
**동래분식당**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4동 3014-19 | 053-655-3456



수목원과 함께하는 감성커피  
**에이치코너**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16-5 상안리드빌 1층 | 0607-136-9886



가족놀이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복합 쇼핑몰  
**대구칼라스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40 | 053-222-6000



안동에 상륙한 바디테라피  
**바디웜힐링테라피**  
안동시 옥동1길 3 | 054-858-3355



착한 재료 착한 위생 착한 가격 착한 맛  
**미스터폰드기**  
구미시 진평동92-5 | 054-474-7882



30년 이상의 통신공사 노하우  
**통신왕**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07길 9 | 053-795-9800



프리미엄 린드리 시스템  
**워시아워**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수로 40길 27 | 053-768-6381



직접 우러낸 100% 육수를 사용하는 맛집  
**일품돼지국밥**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11-1 | 053-562-1898

# 경제팀 개각 초읽기 홍남기 유임 가능성

文대통령, 이번주 인사 예정  
중기부 등 5~6곳 교체 전망  
일부 장관 유임엔 소폭 개각  
“홍 부총리 대체 인물 못찾아”



장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박양우 문체부장관 후임에는 배기동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이 유력하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마지막 경제팀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해 5~6개 부처 교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해 현 정부와 끝까지 임기를 같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3차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임기 마지막인 5년 차가 되면 통상 지지율이 하락하고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이에 개각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는 게 관례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3차 개각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처까지 넓히면 문화체육관광부도 교체 대상이다.

우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이미 밝혀 교체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다만 산업부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는 막판까지 유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인사 폭이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

만약 교체된다면 중기부는 강성현 현 차관과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 산업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5선의 조정식 의원, 농식품부는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 해수부는 국내 첫 여성 조선공학 박사인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

이미 한 번 사의를 표명했던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유임설이 흘러나온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3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려다 여당의 반대로 10억 원이 유지되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의를 반려하며 재신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동산대책 등 산적한 과제가 많아 홍 부총리를 대체할 인물을 고르기가 마땅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쇼하기 보단 성과를 챙기는 스타일이라 문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고 마무리투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앞만 보고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치권에서 기재부 장관직을 강력하게 원하는 인물이 없다면 유임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홍 부총리 유임에 대한 기재부 내부 분위기는 엇갈린다. 기재부 내부 인사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고 당·정·철협에서 청와대와 여당에 변변이 끌려만 다녔다는 평가에서다. 만약 홍 부총리가 유임되면 4월 1일부터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이 된다. 현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윤증현 장관이 842일을 재임,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고위관료 출신들이 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qood@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도청 직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도청과 공공기관 전 직원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19일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뉴스스

## 신규 확진 감소세...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변수

영남권 교회 등서 감염 확산... 집합금지 업종 '조건부 영업' 될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신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종교시설 등 일부 감염경로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위험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62명 증가한 7만2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536명, 해외유입은 26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난달 말 1000명 내외를 오가던 상황까지 치솟았으나, 이달 11일(419명) 이후 사흘째 400~500명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단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신규 발생했다. 경기 가평군 군부대

에선 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명이 추가 확진됐다. 부천시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해서도 21일 지표환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됐다.

기존 감염경로에선 교정·요양·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다.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1214명으로 18명 늘었고, 양천구 요양시설2 관련 확진자는 5명 추가(총 51명)됐다. 경기 안양시 대학병원과 관련해서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총 15명)됐다.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도 106명으로 10명 늘었다.

특히 영남권 종교시설의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도 접촉자 추적관리 중 26명, 격리 중 7명 등 33명이 추가 확진(누적 42명)됐

다. 교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 내 집단감염이 다른 교회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다시 확진자의 가족·지인으로 전파된 상황이다.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확진자도 73명으로 하루 새 35명 늘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안정기'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226개까지 여유가 생겼으며, 전주 대비 주말(9~10일) 이동량은 수도권에서 3.6%, 비수도권에서 9.1% 각각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 14일부터 이날까지 1개월간 누적 3301명의 '숨은 감염원'이 발굴됐다.

중대본은 16일 일부 집합금지업종의 영업을 '조건부' 허용하는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거리두기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에 무게가 쏠린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교정시설 코로나 확산 방지” 법무부, 900명 조기 가석방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 6명 확진... 감염경로 '오리무중'

정부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며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 첫 여성 수용자가 나온 지 나흘이 지났지만 감염 경로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8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여성 수용자다. 이달 9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수용자 A 씨를 포함하면 총 6명이 확진된 상태다.

문제는 이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지난 9일 7차 전수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19로 접견이 제한되면서 외부 출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나머지 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8차 전수검사에서 확진자로 분류됐다. A 씨 옆방 수용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와 유일하게 접점이 있는 사람은 수용동 내에서 배식 등을 담당하는 수용자 B 씨다. B 씨는 여성 수용동 직원들과 접촉이 가능한 수용자다.

다만 이 수용동에 있는 여성 직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수용동 안에서만 배식을 담당해 왔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B 씨에게 (코로나19를 옮긴) 매개체가 누구인지 연결고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 올 OLED 수출 130억 달러 전망

작년보다 20%↑ ... 디스플레이 전체 수출도 증가할 듯

올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전체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OLED 수출액은 전년보다 6.4% 늘어난 10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연속 100억 달러를 달성한 동시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도 1위를 지켰다.

그러나 OLED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수출은 2018년 247억 달러에서, 2019년 205억 달러, 지난해 180억 달러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올해 디스플레이 수출이 184억 달러로 작년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CD(액정표시장치) 생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전체 수출 확대에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폴더블폰에 이어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할 초고화질 OLED TV 출시로 OLED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OLED 수출

예상치는 전년 대비 19.6% 늘어난 130억 달러로 추산된다.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웃도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도 비대면 정보기술(IT) 제품 확대와 프리미엄 OLED 시장 확대에 올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이 작년 대비 13.8% 증가한 1398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가전 전시회인 CES에 참가하는 LG디스플레이의 오프라인 체험존을 격려차 방문했다.

성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디스플레이 수출이 선전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신속한 사업재편으로 미래 신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덕분”이며 “올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선점, 폼팩터 혁신형 제품 양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 세계 1위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K-스마트팜’ 2027년까지 3867억 투자

부처 연구사업 통합, 법인 설립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대규모 스마트팜 육성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업진흥청과 함께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재단법인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이 출범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주관하고 과기부가 참여하는 이 사업에는 2027년까지 국고 3333억 원과 민자 534억 원을 포함해 총 3867억 원이 투입된다. 크게 데이터 기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의 현장 실증·고도화와 완전 무인·자동화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로 나누고, 10개 전략과제, 35개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스마트팜사업단은

사업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으로 세종시에 사무국을 두고 사업총괄 및 연구단 관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단장에는 공모과정을 거쳐 서울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조성인 교수가 임명됐다.

사업단은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통합, 투자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의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팜 기술의 확장성·경제성·안정성 등의 실증연구와 사업화도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 “트럼프 탄핵 찬성”... 공화 실세들마저 속속 ‘반란표’

### 트럼프 ‘마녀사냥, 분노 야기’ 으름장 펜스 ‘수정헌법 25조’ 무산시켰지만 리즈 체니 등 黨내부 속속 탄핵 동조 ‘중립’ 軍조차 ‘바이든이 새 사령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립무원’에 처했다.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통한 대통령 직무 박탈은 예상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진정’ 공화당 내 탄핵 찬성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치 중립을 중시하는 군 수뇌부까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트럼프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의회외사당 난입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 행사에 나섰다. 백악관을 나서 행사장으로 가는 길에 지지자들과의 접촉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멕시코 국경장벽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의회 탄핵 추진이 ‘끔찍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후에는 자신이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발언은 적절했다”며 선동 책임을 부인했다.

전날 민주당이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결의안에 대신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6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뉴욕 웨스트포인트로 가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겼으며 ‘내란 선동’ 혐의를 적시했다.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에 앞서 요구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물 건너갔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이 내각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하원의장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이미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그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탄핵안 표결 전 정치작업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차단한 바 있다. 여전히 하원은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직무 박탈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수순은 13일 하원의 탄핵소추 결의안 본회의 표결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의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상원에서는 100석의 3분의 2 이상(67석)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여전히 트럼프는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나 탄핵소추를 받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트럼프에게 더 큰 부담은 공화당 지도부조차 탄핵 찬성 움직임에 동조하는 등 반란표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존 캣코(뉴욕) 하원의원,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하원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잇따라 공개 선언했다. 특히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의원은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으로, 공화당 하원 서열 3위다.

공화당 지도부도 반대 표결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지키기에서 발을 뺐다. 2019년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안이 가결될 당시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 방지에 주력한 것과 대조된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껴오던 관례를 깨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끄는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의회 난입은 폭동”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 “바이든이 46대 총사령관”이라며 “평화로운 정권이양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비축백신 맞고, 의심승객 막고... 확산세 안 꺾이는 美 ‘특단대책’

### 사망 최다... 2차 접종분 풀기로 미국행 승객 음성 증명 의무화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 몰리게 된 것이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2차 접종용으로 비축했던 백신을 모두 풀기로 했다. 백신 접종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백신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1차 접종만 받게 된다면 효과를 볼 수 없어 2차 접종용으로 백신 절반을 비축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백신을 비축하느라 1차 접종이 더뎠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전역에 배포된 백신 물량은 2769만6150회분이다. 이중 접종된 물량은 약 933만 회분으로, 보급분의 33.6%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차 접종이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전략을 바꿨다. 엘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방정부는 예비용으로 보관된 모든 물량을 출고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보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는 1분기 안에 백신 2종을 추가 승인해 보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미국의 백신 개발과 보급 책임자인 문세프 슬러워 ‘오퍼레이션 워프스피드(OWS)’ 최고책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3월 말까지 아스트라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 주차장에 백신 접종소가 설치돼 있다. 애니하임/AP연합뉴스

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존슨앤드존슨(J&J) 계열사 안센이 개발한 백신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사용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이달 말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1월 26일부터 적용되며 외국인 승객은 물론이고 미국 국적자도 대상이다. 이에 따라 미국행 국제선 승객은 탑승하기 전에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3~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와 시즌이 끝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기장들도 백신 접종 센터로 전환했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미국의 확산세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날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일 연속 20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 수는 4470명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최혜림 기자 rog@



### ‘의사당 폭탄’은 진짜

미국 주방위군이 12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도열해 있다. 하원은 이날 밤 수정헌법 25조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표결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이를 거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결국 의회는 트럼프 탄핵으로 나아가게 됐다. 왼쪽 작은 사진은 6일 워싱턴에 있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사무실 밖에서 발견된 폭발물.

## 유튜브도 트럼프 계정 정지

###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 ‘추방령’ 이어 일주일간 댓글·게시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대가 사라지고 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도 계정 정지를 당하는 등 소셜 미디어에서 추방이 이어졌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날 밤 트럼프 대통령이 자사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정지시켰다. 이에 트럼프의 유튜브 채널은 최소 일주일 동안 새로운 동영상을 게시하지 못하게 되며, 댓글 기능도 비활성화된다.

유튜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폭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비추고 검토한 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채널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는 삼진 아웃 정책에 따른 첫 번째 스트라이크다. 이에 해당 채널은 최소 일주일 동안 새로운 동영상이나 라이브 스트림을 올릴 수 없으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댓글란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된 다른 채널에서 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채널의 댓글 기능 또한 무기한으로 비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주 미국의 의회사당 난입 사태로 트럼프가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쫓겨나는 가운데 이뤄졌다. 트

위터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 때 트윗으로 이를 조장했다는 것과 추가적인 폭력 선동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그의 계정을 영구정지시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트위터 등도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계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정지된 트럼프 대통령의 유튜브 계정은 277만 명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으며, 하루에도 몇 개씩 트럼프 자신과 우익 성향의 언론 매체로부터 받은 동영상에 게시돼왔다. 그동안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어떤 식으로든 중단시키지 않았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었다. 유튜브는 계정 소유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올려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채널을 아예 해지시켜버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yun@

## ‘中백신’ 글썩... 시노백 효과 50% 그쳐

### 공동 개발 브라질 부탄탕연구소 발표... 先주문 국가 불안감 고조

중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 세계의 불신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실제 예방효과가 당초 예상 수준을 훨씬 밑도는 가운데, 제조사 측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전 주문한 국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 제약사 시노백바이오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인 코로나백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브라질 정부 산하 부탄탕연구소는 이날 코로나백의 임상시험 3상 결과 예방 효과가 50.3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 규제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설정한 긴급사용 승인 기준치(50%)를 근소하게 웃도는 수치지만, 지난주 연구소가 발표한 78%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다. 연구소는 약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위약 투여군에서 167명, 백신 투여군에서 85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탄탕연구소의 히카르두 팔라시오스 책임 연구원은 “지난주 78% 효과는 경증과 중증 사례를 고려해 계산된 것”이라며 “매우 경미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효과가 50.38%로 집계된다”고 해명했다.

이는 앞서 개발을 마치고 전 세계에 배포 중인 화이자(95%)와 모더나(94.1%), 아스트라제네카(70.8%) 백신과 비교하면 여전히 너무 낮은 수치다. 또 아무리 변수가 많았더라도 발표 일주일 만에 수치가 크게 바뀐 부분도 우려를 낳고 있다. 브라질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코로나백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같은 코로나백 임상을 진행한 터키(91.25%)와 인도네시아(65.3%)에서 발표된 수치가 극과 극이라는 점도 문제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사용을 승인하고 이번 주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불안감이 크다.

일련의 우려에도 시노백 측은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달 말 예상치 발표 당시 회사는 타 백신과의 비교 분석을 위해 공식 데이터 발표를 1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11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비축한 상태며, 25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아스트라제네카와 1억 회분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보험상품비교 시스템’ 관리도 안 되는데...

# 금감원 타깃에 올분 도한 GA

## 금융인사이트

### ‘보험 비교 설명 점검’ 논란

GA, 月 200만원 유지비 내지만 보험사, 정보 업데이트 중단 속출  
비교 시스템 사실상 ‘무용지물’

금융감독원이 올해 독립보험대리점(GA)의 1분기 점검과제로 ‘보험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를 선정하자 GA업계는 울분 섞인 불멘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금감원도 사실상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점검보단 관리 단속부터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상품 비교·설명 시스템’은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해야 하는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지난 2018년 2월 구축됐다. 생명 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가 함께 돈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고, 현재도 매달 200만 원에 달하는 유지비용이 들어간다. 유지비용은 GA업계에



서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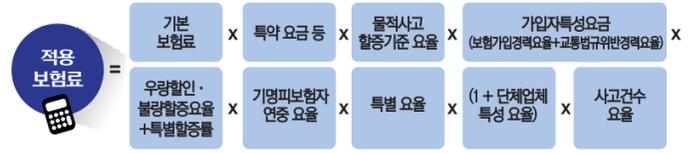
하지만 이 시스템은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사의 비협조로 좀처럼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이 시스템에 상품을 올려줘야 상품 간 비교가 가능한데, 슬그머니 상품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보험사가 속출해 무용지물이 됐다. 실제 시스템 업데이트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사 중 푸르덴셜생명은 2017년, ABL 미래에셋 KDB생명은 2018년 말부터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다. 롯데손보는 2017년 말, DB손보 현대해상 한화손보도 작년에는 일체 올리지 않았다. 보험사별로 기준도 들쭉날쭉하다. 상황이 이러자 ‘보

험상품 비교·설명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GA로선 허탈감이 큰 실정이다. 무용지물이 된 시스템에 매달 유지비용까지 내야 하니 GA업계 입장에선 불만이 더 수박에 겹다.

GA업계 관계자는 “수기로 작성하는 상품비교설명서를 대체하지는 못하니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금감원과 양 협회 담당자들의 관심이 사그라들자 보험사들은 슬그머니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금감원도 알고 있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금감원이 시스템 관리를 위해 보험업계를 조금만 독려 해주면 상황은 나아질 텐데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 개요



## “車보험 할증, 클릭 한 번이면 확인”

### 금감원, 조회시스템 구축

오는 14일부터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가입해 보험사를 변경하다 보면 가입한 보험사와 보험 만기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앞으로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와 차종 및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갱신보험료의 할인·할증 내역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를 확인하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나 소비자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앞으로는 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한다. 또한 전계약 대비 현재 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과 주행거리 정산 후 보험료 등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과거 10년 간 자동차사고와 법규위반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3년 간 소액 사고가 다수일 경우,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므로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 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제는 조회시스템에서 과거 10년 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산출되는 등 매우 복잡해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면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2300만명 이상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큰 관심사항 중 하나”라며 “자동차보험 갱신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 기업銀, 노조추천이사제 시동에 드리운 ‘勞治’

### 노조추천이사 선임 땀 금융권 1호 경영개입 확대... 경쟁력 악화 우려

IBK기업은행 노사가 오는 2월과 3월 사외이사 두 명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성사될 경우 은행권은 물론 금융권 최초다. 노조는 경영 투명성을 위해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노조의 경영개입 확대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 우려도 있다.

13일 기업은행 노조는 다음달 김정훈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 막바지 의견 조율에 한창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 앞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추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연기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추천 이사 도입 방식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건 부담이 있어 연기했다”면서 “현재 일반인에게는 사외이사 추

천 기회를 주는 국민공모형식과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내부 추천제로 할지 최종 논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가 노조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공익성을 위한 것이라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내친김에 정관변경을 통해 노조추천이사제의 정례화, 제도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일단 기업은행 노사가 합의한 뒤 정관개정권을 가진 금융당국과 협의도 거쳐야 한다. 노조는 윤종원 행장이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합의한 만큼 사측과의 협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공기업인 기업은행은 주총 없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추천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이 중 김정훈·이승재 사외이사는 2월과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상태다. 기업은행 노조는 두 자리 중 최소 한 자리는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 금융소비자 보호 쪽에 역량이 있는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측 등 일각에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강성노조로 꼽히는 금융노조가 경영에 간섭하게 되면 경영혁신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다. 노조추천 이사가 노조 측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노사갈등 이슈를 이사회까지 끌어들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노조추천이사의 반대로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꼽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조의 경영개입이 현실화되면서 속도감 있게 혁신금융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로 가는 전 단계로, 향후 노동이사제 논의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법근 기자 nova@

## 은행 가계·기업 대출 문턱 더 깎아진다

빛투(빛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투자)에 가계 대출수요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대출을 더 옥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수요 증가세도 예견된다. 반면, 여신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은행은 심사를 더 깎아질 전망이다.

13일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작년 4분기(10~12월) 중 대출수요는 25를 기록했다. 특히, 가계일만 대출수요는 44를 기록해 2분기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주택 대출수요도 24로 2015년 4분기 31 이후 5년(20분기)만에 가장 높았다.

올 1분기는 19로 예상해 대출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일만과 가계주택도 각각 18과 3을 기록했다.

반면, 작년 4분기 대출태도는 -19로 2017년 1분기(-19) 이후 3년9개월(15분기)만에 가장 강화됐다. 특히, 가계일만은 -44로 역대최저치를 기록했고, 가계주택은 -24로 2018년 4분기 -47 이후 2년(8분기)만에 가장 낮았다. 올 1분기 전망치 역시 각각 -8과 -12, -6을 기록해 대출태도는 여전히 깎아질 전망이다.

기업은 보면 4분기 중 대출수요는 중소기업의 경우 18로 여전히 높았다. 대기업은 -3으로 1분기(-7) 이후 3분기만에 감소세



로 돌아섰다. 올 1분기는 각각 26과 9로 예상해 대출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봤다.

4분기 중 대출태도는 중기의 경우 3을 기록해 8분기 연속 완화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반면 대기업은 -3으로 3분기째 강화를 유지했다. 올 1분기엔 중기는 -6, 대기업은 -3으로 각각 강화를 예상했다. 다만 중기의 경우 작년 3분기부터 2분기째 강화할 것이라 전망이 실제론 완화로 나타났다. 이 점에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4분기 중 신용위험은 22를 기록했다. 2분기 42 이후 2분기 연속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올 1분기중엔 25를 예상했다. 이중한 한은 은행분석팀장은 “부동산과 주식 호황에 대출수요는 증가한 반면, 대출태도는 당국의 정책과 금융권 자체 판단에 강화됐다. 신용위험은 높아졌다. 올 1분기 전망치 숫자가 작년 4분기 실적치 대비 감소했다곤 하나 전분기와 비교할 수치라는 점에서 대출수요는 줄고 대출태도는 완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 토스 등 7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 ‘대주주 리스크’ 카카오페이 보유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SC제일은행 등 7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외국 대주주 문제로 이번에도 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회사는 SC제일은행, SK플래닛, 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팡,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7개사다. 뱅크와 아이지넷은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엔트그룹이 중국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확인작업이 진행 중이다.

예비허가를 받은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는 올 1월 말 마이데이터 분허가 심사가 이뤄진다. 분허가 결과는 1월 말 금융위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37개 신청기업 중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의 경우 다음달 4일까지 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전 안내(문자, 앱알람 등)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산 기자 jinsa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극복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회복

전염병의 끝을 위한  
질병정복

2021년 모두를 위한  
전화위복

#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새해의 행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잠시 멈춤'으로  
코로나19를 멈춰주세요



〈수소연료전지 기업〉

# SK 투자한 美 플러그파워, 르노와 수소 상용차 합작

SK, 최대주주 된 지 5일 만에 지분 가치 2조 이상 상승  
佛 연료전지·차량 생산망 구축...유럽 30% 점유 목표

SK(주)와 SK E&S가 수소 사업 확장을 위해 공동 투자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미국 플러그파워가 프랑스 르노그룹과 협력한다. 아시아에 이어 유럽 지역까지 수소 시장 선점에 빠르게 나서면서 플러그파워의 주가가 급등, SK의 지분가치도 투자 5일 만에 2조 원 이상 상승했다.

13일 SK(주)에 따르면 플러그파워는 12일 르노그룹과 유럽 내 중소형 수소 상용차 시장 공략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플러그파워와 르노그룹은 합작법인을 통해 유럽 내 연료 전지 기반 중소형 상용차 시장 30% 이상 점유를 목표로 프랑스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과 최첨단 수소 차량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에 플러그파워의 주가는 12일 66달러로 마감해 SK의 주당 취득가액 29달러 대비 130% 상승했다. 플러그파워의 시가총액은 34조 원 규모로 증가했다.

앞서 SK(주)와 SK E&S는 7일 플러그파워의 지분 9.9%를 1조6000억 원(15억 달

리)에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SK(주) 관계자는 "SK의 지분 가치는 2배 이상 치솟았으며, 이번 투자로 보유 지분 가치 상승분만 벌써 2조 원을 넘어섰다"며 "투자 5일 만에 거둔 성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이례적인 성장세"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플러그파워의 주가 상승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큰 기대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와 바클레이즈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SK와 플러그파워는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양사 간 협력을 통해 아시아 수

소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SK(주) 관계자는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대비하여 오랜 검토 끝에 이뤄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주)는 수소 밸류체인 내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플러그파워와 수개월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 플러그파워는 국내외 우수 기업들로부터 지분투자 및 조인트벤처(JV) 협력을 요청받았으나, SK의 에너지 사업 역량 및 아시아 시장에서의 폭넓은 네트워크 등을 높이 평가해 SK를 선택했다. 특히 기술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SK의 경영 참여까지 수용했다.

SK는 SK E&S를 중심으로 2023년부

터 연 3만 톤의 부생수소를 공급하고, 2025년부터 연 28만 톤 규모의 친환경 블루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SK E&S는 지난 10여 년간 LNG의 생산-유통-소비 등 밸류체인을 성공적으로 통합하였으며, LNG와 사업 구조가 유사한 수소 사업에서도 밸류체인 통합을 통해 국내 수소 시장을 선점할 방침이다.

SK E&S 사장 겸 SK 수소사업추진단장인 추형욱 사장은 "SK그룹의 사업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 공급 능력과 플러그파워의 수소 액화·운송·충전 분야의 기술을 접목한다면 안정적인 경제적인 수소 밸류체인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한화에어로, 지분 30% 인수하는 '쉴트렉아이' 독자경영 지원

국내 최초 '인공위성' 전문 기업...중장기적 시너지 기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우주 위성 전문기업 쉴트렉아이의 지분 20%를 약 590억 원에 인수했다고 13일 밝혔다.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도 취득해 최종적으로 약 30%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쉴트렉아이는 국내 최초 설립된 위성 전문기업으로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를 하고 있다. 위성 본체, 지상 시스템, 전자광학 탑재체 등 핵심 구성품의 직접 개발

과 제조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업체다. 2019년 기준 매출 702억 원, 영업이익 92억 원을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이번 지분 인수에 대해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우주 위성산업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사와의 시너지를 통한 위성 개발 기술 역량을 확보해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쉴트렉아이의 지분 인수와 상관없이 쉴트렉아이의 현 경영진이 계속해서 독자 경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 양사의 역량을 집중하면 국내외 우주산업의 위성 분야에서 많은 사업확장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위성 사업 관련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KSLV-2)' 액체로켓엔진 개발을 맡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

화시스템은 위성 탑재체인 영상레이더(SAR), 전자광학·적외선(EO/IR) 등 구성품 제작 기술과 위성안테나, 통신 단말기 등 지상체 부문 일부 사업도 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시너지를 통해 국내외 우주 위성 사업 부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한편,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21일자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LS전선의 이집트 공장(LSMC) 작업장 모습.

## LS전선, 이집트 공장 준공 아프리카서 첫 케이블 생산

LS전선은 이집트에 아프리카 첫 케이블 공장을 준공했다고 13일 밝혔다.

LS전선은 지난해 1월 이집트 카이로시 인근 산업도시에 현지 케이블 전문 시공업체인 만(MAN)과 합작법인(LSMC·LS MAN Cable)을 설립했다. LS전선은 이집트 법인의 준공으로 미국과 중국, 베트남, 폴란드 등 해외에 총 11개의 생산법인을 운영하게 됐다. LSMC는 최근 이집트 전력청과 신도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 공장 준공과 함께 양산에 들어갔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 경제 블록화로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주요 거점 국가에 직접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 케이블 시장은 신형정수도 건설,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와 기존 전력망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수요가 겹쳐 매년 평균 5% 이상 성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집트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동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대한항공, 4년 연속 '5성 항공사'

대한항공은 APEX의 오피셜 에어라인 레이팅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5성 등급'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뉴욕에 소재한 APEX는 1979년 설립된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로 항공사, 항공기 제조사 등 항공업 관련 482개 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APEX의 항공사 등급 평가는 전 세계 600여 개 항공사의 100만여 편 이상의 항공편을 대상으로 항공기 좌석, 기내서비스 등에 대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수집한 후, 외부 전문 감사 기관의 검증을 거쳐 최종 등급을 측정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일등석 코스모스 스위트 2.0 좌석, 풍부한 콘텐츠를 담은 기내 엔터테인먼트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현대차 '궁극의 캠핑' 아이오닉5 티저 공개

가정용 전자제품 연결 영상 화제  
1회 충전 500km 주행 배터리 강조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번째 모델 '아이오닉 5(IONIQ 5)'의 외부 티저 이미지(사진)를 13일 최초로 공개했다.

아이오닉 5에는 아이오닉 브랜드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 픽셀(Parameteric Pixel)'과 자연 친화적 색상, 소재가 사용된 점이 특징이다. 파라메트릭 픽

셀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픽셀'을 형상화한 아이오닉 5만의 차별화한 디자인 요소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해 세대를 관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전면에는 현대차 최초로 상단부 전체를 감싸는 클램셸(Clamshell·조개껍데기) 후드를 적용해 유려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인상을 완성했다. 측면부는 현대차 전기차를 통틀어 최대 지름인 20인치 휠을 사용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의 핵심 기술을 담은 영상 4편을 공개하며 첫 전용 전기차 모

델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영상은 아이오닉 5를 통해 소비전력이 높은 전자제품을 활용하는 '궁극의 캠핑' 3편과 아이오닉 5가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과 충전 대결을 펼치는 '5분 챌린지' 1편이다.

특히 '궁극의 캠핑' 영상은 일반 전원(110/220V)을 차량 외부로 공급할 수 있는 아이오닉 5의 V2L(Vehicle to Load) 기술을 사용해 주인공들이 가정용 전자제품을 캠핑에 활용하는 모습을 표현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영상 속에는 캠핑 장소에서 △대형 전기

오븐에 칠면조 요리를 하는 주인공 △여러 개의 최고급 스피커로 음악 감상을 하는 주인공 △러닝머신으로 운동하는 주인공이 등장해 그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나온다.

아이오닉 5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처음 적용한 모델이다. E-GMP는 전기차만을 위한 최적화 구조로 설계돼 차종에 따라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내달 온라인을 통해 아이오닉 5를 공개할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 LG, 美 컨슈머리포트 최고 프리미엄 냉장고 석권

LG전자가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진행한 '최고의 프리미엄 냉장고' 평가에서 전 종목을 석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가 뽑은 '최고의 도어 인 도어 냉장고(Best Door-in-Door Refrigerators)' 6개 제품은 모두 LG전자 제품이다. △3도어 프렌치도어 △4도어 프렌치도어 △양문형 총 세 가지 부문에서 각각 1-2위를 모두 차지한 것이다.

도어인도어 냉장고는 냉장고 외부 패널과 내부 사이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마련해 냉기를 보호하는 제품 형태를 의미한다.

컨슈머리포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20% 이상이 도어인도어 기능이 있는 냉장고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는 이에 대해 "도어인도어 냉장고는 문 전체를 열지 않아도 자주 쓰는 식품을 꺼낼 수 있어 편리하다"고 분석했다.

LG전자는 노코온 매직스페이스라는 차

별화한 기능을 적용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노코온 매직스페이스는 사용자가 전면 도어를 노크하면 내부 조명이 켜지는 기능이다. 문을 열지 않고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냉기 유출을 막는다. LG전자 냉장고는 지난해에도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한 프렌치도어 냉장고, 상냉장·하냉동 냉장고 부문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는 등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LG 노코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 박일평 CTO “라이벌과 협력해야 뉴노멀 선도”

**‘LG 미래기술 대담’**  
“전과 다른 방식으로 혁신해야”  
스마트 밀키트 업체와 협업 등  
분야 경계 넘는 파트너십 소개



박일평(왼쪽) LG전자 CTO가 12일(미국 현지시간) ‘LG 미래기술대담’에서 사회자 에이미 알리아와 ‘함께 만드는 혁신’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다.

박일평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사장이 뉴노멀 시대에는 분야 간 경계를 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12일(미국 현지시간)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에서 ‘함께 만드는 혁신(ONwards, Together)’을 주제로 ‘LG 미래기술대담(LG Future Talk)’을 진행했다. 박 사장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고객 가치를 혁신하기 위해 분야 간 경계를 넘

는 플랫폼 경쟁력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최근 LG전자가 개발한 △배송로봇, UV-C(Ultraviolet-C) 램프를 이용한 살균로봇 등 다양한 LG 클로이로봇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정정기 △스마트 열화상 카메라 기술 등을 소

개하며 “LG전자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신속하게 활용해 팬데믹(Pandemic·범유행)에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험한 일상의 변화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을 만들려면 실질적인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상을 뛰어넘는 스케일과 속도

로 변하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경쟁자와도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협력하는 혁신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오픈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LG 이노베이션 카운실’을 좋은 사례로 꼽았다.

LG전자는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통해 미래기술과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LG 이노베이션 카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카운실은 박 사장이 의장을 맡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모빌리티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박 사장은 다양한 LG전자 협력사들을 소개했다. LG전자는 미국의 스마트 밀키트 업체인 토발라와 협업해 LG 씽큐 앱의 생태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식생활과 관련한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LG전자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든 보고서인 ‘AIX Exchange(인공지능 경험 익스체인지)’를 공개했다. 이달 27일에는 LG전자와 스위스 소프트웨어 기업 룩소프트(Luxoft)와 설립한 조인트벤처(JV) ‘알루토(Alluto)’도 출범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삼성전자 “차세대 TV, 필요 따라 자유자재 설정”...비스포크 확장

TV 콘퍼런스 세션 참가... “화면 나눠 맞춤 콘텐츠 제공”

삼성전자가 개인 맞춤형 스크린을 차세대 TV의 요건 중 하나로 꼽았다. TV 화면에 특정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띄워 놓는 등의 개인화가 주요 기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전망했다. 1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TV(Next Generation Television in Focus)’라는 주제의 콘퍼런스 세션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세션은 마이클 데이비스 포크스포

츠 부사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그레이스 돌란 삼성전자 미국법인 홈 엔터테인먼트 부문 통합 마케팅 상무와 마들렌 놀란드 ATSC(미국 디지털TV방송 표준화기구) 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돌란 상무는 차세대 TV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며 “화면에 개인화된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가전 분야에서 ‘비스포크’



왼쪽부터 마이클 데이비스 포크스포츠 부사장, 그레이스 돌란 삼성전자 미국법인 상무, 마들렌 놀란드 ATSC 사장. (사진: 삼성전자)

지머 스포츠 게임도 즐긴다”며 “TV 화면에 모바일 화면과 스포츠 게임, 스포츠 베팅 사이트 등을 모두 띄어 놓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화면을 3분의 1로 나누고, 세로로 돌릴 수도 있다”며 “경험하고 싶은 콘텐츠를,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화하는 설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돌란 상무는 “예상하지 못하고, 전통적이지 않았던 부분에서 (TV업체와 타업종 간) 멋진 파트너십이 나올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통적인 방송에서는 콘텐츠 제작자와 창작자가 분리돼 있었는데, 두 가지가 합쳐지는 현상도 TV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8K TV에 대한 놀라움도 표현했다. 돌란 상무는 “8K TV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마케팅을 했다”며 “처음 8K TV를 접했을 때, 진짜 이미지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아직 8K TV로 볼 수 있는 콘텐츠는 한정돼 있다”며 “PC 게임에서 8K 콘솔이 나오고, 8K 게임이 개발되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마스크로 통화하고 집에서 영양제 제조

기발한 헬스케어 제품들  
‘K디지털헬스’ 125곳 참여  
편리한 ‘침단 마스크’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듯, 올해 CES 2021에선 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이젠 땀 수 없는 필수품이 돼 버린 마스크엔 갖가지 편의 기능이 추가됐고, 전염병 우려로 병원을 가기 꺼리는 소비자들을 위한 자가진단·원격진단 플랫폼이 등장했다. 게임용 키보드·마우스 등을 제조하는 미국 IT 기업 레이저(Razer)는 13일(현지시간) CES를 통해 ‘가장 똑똑한 마스크’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프로젝트 헤이즐’을 공개했다. 기본적으로는 N95 마스크지만, 어두운 환경에서도 얼굴 표정을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조명 시스템과 플라스틱 소재가 장착된 접이 특징이다.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내보낼 수 있는 마이크와 앰프로 장착됐다. 이는 일반적인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입술 모양을 읽어 소통하는 청각장애인들에 생활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착안한 것이다. 영국 IT업체 비나톤은 마스크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단 ‘마스크폰’ 제품을 선보였다. 음악, 팟캐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손

쉽게 즐길 수 있고, 마스크를 벗지 않고도 선명한 음질로 통화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국내 기업 중에선 LG전자가 지난해 개발한 전자식 마스크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정정기’를 CES 공개 제품에 포함했다. 이 제품은 현재 홍콩과 대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선제적으로 판매가 시작됐고, 국내에선 식약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방역·비대면 진료 등 건강관리와 관련한 기술도 주목받았다. 실제로 올해 참가한 기업 총 1951곳 중 29%에 달하는 565개 기업이 디지털 헬스와 웰니스(웰빙과 건강의 합성어) 업체일 정도로 관련 분야에 관한 관심이 뜨거웠다. 이 중 한국 기업 수도 125개로 적지 않았다. 올해 CES에선 헬스케어와 관련된 국내 신생기업들이 혁신상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엠투에스는 VR(가상현실)을 이용한 시신경 검사기 ‘VROR’을 통해 설립 3년 만에 혁신상을 받았다. 검사기 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눈의 상태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 서비스와 연결하는 솔루션이다. 알코케어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개인 맞춤 영양제를 제조하는 솔루션으로, 에이티센스는 최초로 11일까지 연속 검사가 가능한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로 혁신상 주인공이 됐다. 노우리 기자 we1228@



위부터 마스크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단 영국 비나톤의 ‘마스크폰’, 국내 신생기업 알코케어가 개발한 개인 맞춤 영양제 제조 솔루션, 미국 풀콜의 낙상방지 웨어러블 솔루션. (사진: 엠투에스)

## 삼성 파운드리, 수주 퀀텀점프 초읽기

인텔, 위탁생산 첫 언급  
대만 TSMC와 후보로 거론  
수주 놓쳐도 간접물량 늘 것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가 올해 퀀텀점프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텔이 외부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삼성전자의 대형 고객사 발주 물량 증가 가능성이 커졌다. 밥 스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12일(미국 현지시간) CES2021 소규모 간담회에서 외부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외부 파운드리를 활용함과 동시에 IDM(종합반도체회사)로서의 이점을 유지할 수 있어 경쟁사 대비 원활한 공급 및 재고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스완 CEO는 “모든 혁신을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다. 이는 더 많은 아웃소싱을 의미한다. 자체 생산시설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설비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인텔이 다른 누군가의 공정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묻는다면, 가능하다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텔이 반도체 칩 생산 일부를 삼성전자나 TSMC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 추측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인텔이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웃소싱 칩은 오는 2023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텔은 오는 21일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전까지 생산 아웃소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 물량을 맡을 후보군으로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거론된다. 양사는 7nm(나노미터=1억분의 1m), 5nm의 초미세공정이 가능하다. 업계는 인텔 물량 상당 부분을 대만 TSMC가 가져가고 삼성전자가 부분 수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TSMC가 인텔 물량을 대량 수주하게 되더라도 생산능력 한계 탓에 TSMC의 기존 고객사 물량은 삼성전자로 넘어갈 수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 생산 일부를 위탁받을 경우, 수주 물량 확대와 더불어 위상도 높일 수 있다. 삼성은 퀄컴, IBM,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 발주 물량을 수주하며 존재감을 높이며, TSMC와의 격차 줄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생산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다졌다. 삼성전자는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1에 탑재할 엑시노스2100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도 신형 스마트폰에 적용될 예정인데, 두 제품 모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5nm 미세공정으로 만들고 있다. 무엇이 쓰이던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호재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정부,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에 '복합금융' 3兆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개발(R&D)-투자-보증-융자가 결합한 복합금융 제도를 마련해 2022년까지 3조 원 지원, 일자리 2만여 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13일 중기부는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도입 등을 담은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기술개발 과제(R&D project) 기반 복합금융 마련 △복합금융 활용 벤처투자 특례 보안 △복합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구성돼 있다.

## 저리로 빌려주고 지분 공유 '투자조건부 융자' 도입 기술보증·자금 대출 병행 지원 '사업화 금융' 신설 벤처투자·기술개발 연계 '투자형 기술개발'도 확대

먼저 정부는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융자기관이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 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에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융자기관 입장에서는 후속투자 가능성이 큰 기업에 융자를 해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때 금리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융자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후속 투자 가능성을 더 높이고, 투자가 아닌 융자이기 때문에 창업자 등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부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돕는 복합금융 제도도 확대된다. 기업의 기존 재무 등을 보지 않고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기술보증·사업화

자금 대출을 병행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위 기술개발(R&D)사업화금융'을 2021~2022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기술개발과 벤처투자가 연계된 투자형 기술개발은 지난해 165억 원에서 올해 335억 원으로, 기술개발과 보증이 연계된 후불형 기술개발은 143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총 308억 원에서 545억 원으로 확대된다.

벤처투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복합금융제도를 보강한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보증제도가 도입되고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집행을 위해 일시적인 출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행 45%인 비수도권 기업 투자비중도

2025년까지 연간 투자액의 65% 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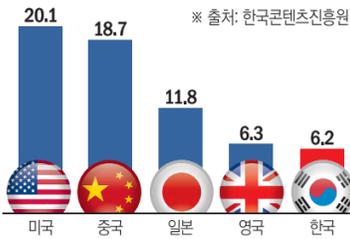
한편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벤처투자 인공지능 온라인 매칭플랫폼(가칭)'을 2022년까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제2벤처법의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기술 창업·벤처기업 맞춤형 복합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이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주요 국가별 게임산업 점유율

(단위: %, 2019년 기준)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게임 글로벌 순위 4위서 5위로 '뺏겼음'

### 자본력 앞세운 中 공세에 고전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위상이 뺏겼음치고 있다. 반면 중국 게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 성장하며 게임 시장 1위 미국을 넘보고 있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엠브레인 퍼블릭, 콘텐츠경영연구소와 함께 '해외 시장의 한국게임 이용자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6개 권역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세부적으로는 '해외 게임 환경 자료 조사', '국가별 게임 이용자 조사', '국가별 게임 퍼블리싱 전문가 인터뷰'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해외 시장에서의 한국 게임에 대한 위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세계 게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8년 6.3%로 4위에 올랐지만 2019년에는 6.2%로 5위로 밀려났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며 한국 게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대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 개발하는 중국 게임들은 한국 게임보다 사양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고사양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국내와 달리 저가 스마트폰에서도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게임보다 경쟁력이 월등하다는 평가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 이미 출시해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은 리뉴얼 과정을 거쳐 현지에 최적화를 진행해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일부 게임들은 국내보다 해당 국가를 타깃으로 정해 개발 초창기부터 국가에 맞는 방향으로 전략을 결정하기도 한다.

국내 한 게임 개발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개발사는 글로벌 시장 전체를 겨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국가만의 특징을 분석해 공략법을 마련한다"며 "중국 게임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전체 시장에서는 국내 게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카카오모빌리티-기아차 '전기차 활성화' 협력

## 택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카카오모빌리티와 기아자동차가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위해 협력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 압구정 기아차 사옥에서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본부장과 권혁호 기아차 국내사업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국내 모빌리티 업계에 친환경 전기가 빠른 속도로 보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우선 기아차의 전기차 기술 및 관련 인프라와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빌리티 플랫폼을 접목해 택시를 포함한 운수 업계 종사자 및 승객, 일반 자동차 운전자 모두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택시 업계에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전기 택시 사업자의 불편함과 부담감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아차의 전기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모델 기획 단계부터 택시 업계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양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 및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본부장은 "전기차는 탄소배출 절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운전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고 승차감과 소음 저감 효과가 뛰어나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보다 나은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친환경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안규진(오른쪽)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본부장과 권혁호 기아차 국내사업본부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카카오모빌리티

# "복잡한 연말정산, 스타트업 앱으로 손쉽게 하세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가운데,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3일 핀테크 스타트업 뱅크샐러드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뱅크샐러드는 해당 서비스 론칭 이후 전월 대비 앱 신규 회원이 최대 135%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입 일주일 내로 본인의 금융자산을 앱에 연동시키는 건수도 두 배가량 늘었고, 앱을 이용한 사용자 중 3분의 1가량이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연말정산 서비스는 개인의 카드와 현금 사용량을 분석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뱅크샐러드 애플리케이션(앱)에

'뱅크샐러드' 환급액 간단 조회  
'뉴플로이' 증빙자료 확인·제출  
'포티투마루' 상담 AI 챗봇 운영

연동된 카드와 현금 지출 내역을 분석해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고 지출 내역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분석해준다.

근로데이터 전문 스타트업 뉴플로이도 지난주 '뉴플로이 연말정산(사진)' 앱을 출시했다. 해당 앱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 자료를 스마트폰만으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소득·세액 공제용 증빙 자료의 경우 앱을 통해



활영해 올리면 이를 전자 문서로 자동 변환해 공제 절차를 밟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금증도 해소할 수 있다. 소득 및 세액공제 기준과 필요 서류를 앱 안에서 안내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도 나섰다. 포티투마루는

전날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상담 AI 챗봇'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3월 말까지로, 누구나 연말정산과 관련해 질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축했다.

포티투마루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기본정보, 소비 및 가족형태 등의 유형별 정보,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절차 안내 등 연말정산 관련 종합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 또한 확정자료의 경우 20일부터 제공된다. 이다원 기자 leedw@

### 〈벤처기업협회장〉

## 안건준 "원격의료 등 신산업 규제 완화 적극 추진"

벤처기업협회가 올해 원격의료,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협회가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 눈높이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을 발굴해내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안건준(사진)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벤처업계 신년 현안 및 정책방안'을 밝혔다.



안 회장은 먼저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계가 대안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중심에서 벤처기업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가능성에 도전하면서 위기 극복

을 위한 대안적 성장기업군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짚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 일자리는 6월 말 기준 66만 769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7319명(4.3%) 늘어났던 것이다.

안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혁신벤처기업

에 대한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데에는 벤처기업의 역할이 컸다"며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산업규제 측면에서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가 특히 필요하다"며 올해 원격의료 분야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원 기자 leedw@

# ‘1인용’ 대형마트·‘대용량’ 편의점... 유통가 ‘영역파괴’

이마트 일렉트로맨 혼족 가전 늘려... 홈플러스 ‘1/4 수박’ 론칭 GS25, 5ℓ 맥주·CU, 3인 도시락 출시... ‘장보는 곳’ 인식 변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를 겪고 있는 유통업계에 영역 파괴 바람이 거세다. 편의점들은 대형마트에서만 팔 것 같은 대용량 제품을 속속 출시하는 반면, 대형마트는 1인가구를 겨냥한 상품 개발 등 사업 확장에 나섰다.

◇혼족 겨냥 대형마트=13일 이마트에 따르면 일렉트로맨 혼족 가전 연매출은 2019년 150% 신장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0% 늘었다. 1인가구 증가세에 맞춰 이마트 내 혼족 가전도 다양해져, 2018년 첫 론칭 당시 주방가전 7종으로 시작한 일렉트로맨 혼족 가전은 현재 생활·계절가전으로 범위를 넓혔고 운영 품목 또한 20여 종으로 확대됐다.

혼족 관련 제품이 인기를 얻자 최근에는 아예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했다. 대표 상품은 ‘일렉트로맨 프리미엄 혼족 라면포트’와 ‘일렉트로맨 프리미엄 혼족 전기포트’, ‘일렉트로맨 혼족 미니블렌더’다. 이를 시작으로 이마트는 올해 그릴·커피메이커·나이프케터 등 10여 개의 프리미엄 혼족 가전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도 올 설 선물세트 소포장 견과류 세트 물량을 지난 추석 대비 약 20% 가량 늘려 준비했다. 이는 최근 들어 소규모 가족이 늘면서 소포장 선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추석 명절 당시 1인 가구를 위한 대표 상품인 ‘한우 한끼구이 세트’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24.9% 신장한 바 있다.



대형마트에서 1인 가족 공략은 더 이상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지난해 여름 소단위 포장 과일이 잘 팔리자 홈플러스는 반으로 자른 수박을 한 번 더 자른 ‘1/4 수박’ <사진>을 새롭게 론칭했고, 이마트 역시 미니 수박과 ‘나혼자 수박’, ‘반쪽 수박’, ‘1/4 수박’ 등 5kg 미만 수박을 3~4년 전 물량 대비 3배나 늘어난 1000톤을 준비해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대형마트가 소단위 상품과 혼족을 노리는 것은 최근 1인 가족 증가세와 관련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6.7% 가량 증가하며 전체 세대 중 39.2%에 달한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친 비중은 전체 가구의 62.6%에 이른다.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2016년 25%에서 2020년 20%로 떨어졌다.

◇장 보기 매장으로 진화한 편의점=그런가 하면 편의점은 대용량 제품을 속속 출시해 대형마트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다.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편의점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당장 필요한 물건을 소량으로 구입하는 곳’에서 ‘집 가

까이에서 장을 보는 곳’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편의점 과일의 경우 통상 1입 세척과일, 컵과일, 미니과일 등 소용량 상품 위주로 판매가 됐지만 2019년부터 가족주먹가 입지를 중심으로 대용량 과일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CU의 지난해 관련 상품 매출은 2018년에 비해 5배 가량 급증했다. 최근 한달(12월 13일~1월 11일) 매출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대용량 커피는 34.7%, 대용량 과일도 23.4% 뛰었다.

GS25 역시 소용량 과일보다 대용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 한달 국산과일 기준 딸기 500g이 카테고리 매출 1위, 사인머스켓 400g이 2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동일품종 소용량으로 구성된 상품보다 최대 4배 높은 매출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추위 여파로 소용량보다는 대용량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일 뿐만이 아니다. GS25는 2019년 500ml 대용량 커피 상품 출시로 대용량 페트커피의 매출이 2배 가량 치솟자 지난해에는 아예 1ℓ 대용량 사이즈 상품을 내놨고, 최근에는 ‘하이네켄5ℓ 케그’, ‘타이거 5ℓ 케그’, ‘에델바이스5ℓ 케그’ 등 대용량 생맥주도 O2O서비스 라스트오더에도 입했다.

CU는 1인분인 기준 도시락과 달리 2~3인분 홈플러스도 도시락도 새롭게 선보였으며, 아이스크림의 경우도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파인트 품목 수를 늘렸다.

남주현 기자 jooh@

## 빨대 없앤 우유... 라벨 없는 생수 식품업계 ‘탄소중립’ 힘 보탠다

매일유업 ‘상하목장 멸균우유’ 빨대 제거 상품 온라인 판매 풀무원·롯데칠성 친환경 동참



식품업계가 연초부터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힘을 보탠다. 탄소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위해 자원 순환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식품·유통업계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아이스팩을 생수 등으로 대체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 왔다.

매일유업은 빨대를 제거한 ‘상하목장 유기농 멸균우유 190ml’ 제품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타벅스 등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사라진데 이어 RTD(병, 페트, 팩 음료)까지 친환경 행보에 동참한 것이다.

빨대를 제거한 상하목장 유기농 멸균우유는 12일 출시된 매일유업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첫 판매에 들어갔다. 매일유업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 반응과 판매 추이를 파악하고, 빨대 없는 멸균우유의 판매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풀무원은 바이오페트로 만든 친환경 샐러드 용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사용에 들어갔다. 바이오 페트 용기는 풀무원 계열사에서 선보이고 있는 샐러드 제품에 적용된다. 풀무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평균 플라스틱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146kg이다. 미국(100.2kg), 중국(72.6kg), 일본(71.5kg)을 큰 폭으로 앞서는 수치다.

풀무원은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건강 도시락인 ‘샐러드’ 제품 용기에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페트를 적용해 환경경영에 속도를 낸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는 계획이다. 풀무원의 포장 혁신을 추진하는 풀무원기술원이 개발해 선보이는 ‘바이오 페트(Bio-PET)’는 구성 원료 중 일부를 사탕수수 추출 원료로 적용해 제조·유통·소각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약 20% 절감할 수 있다. 또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선보인 무라벨 생수 ‘아이스 ECO’는 친환경 생수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아이스 ECO는 페트병 몸체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국내 최초의 무라벨 생수로, 개봉 및 음용 후 바로 분리 배출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1.5ℓ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6월에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중적인 생수 용량인 500ml, 2ℓ 제품을 추가하며 무라벨 생수를 적극 알린 결과 1년간 1010만 개의 판매고를 달성했다. 아이스 ECO가 절감한 포장재 폐기물은 6.8톤 규모다. 절감된 라벨을 가로로 이어붙이면 총 3020km로 서울과 부산을 약 9번(왕복 4번 이상) 이동할 수 있는 길이다.

편의점 CU는 친환경 경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매장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전격 교체했다. CU 친환경 일회용품은 PB상품으로 소주컵, 종이컵, 접시 등 총 8종이다.



### 롯데백화점 영동포점 ‘테슬라 Model Y’ 공개

롯데백화점 영동포점 1층 테슬라 갤러리에서 테슬라의 두 번째 전기 SUV인 ‘테슬라 Model Y’가 13일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테슬라 갤러리가 위치한 롯데백화점 영동포점은 1년간의 리뉴얼을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테슬라 갤러리는 테슬라 차량과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고객 체험형 공간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테슬라의 SEXY(Model S, Model 3, Model X, Model Y) 라인업을 한곳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 ‘후레쉬민트껌’ 3년 만에 재출시

후레쉬민트껌이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롯데제과는 2017년 생산을 중단했던 후레쉬민트껌을 재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레쉬민트껌은 1972년 선보인 주시후레쉬, 스피어민트껌과 함께 국내 껌시장을 대표하던 제품이다. 롯데제과는 2000년대 들어 자일리톨껌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전력 집중을 위해 주시후레쉬, 스피어민트는 남겨 놓고 후레쉬민트는 2017년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재탄생한 후레쉬민트는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마니아들의 향수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후레쉬민트껌의 재탄생 배경은 맛과 향수를 잊지 못하는 마니아들의 요청과 최근 들어 커피전문점에서 페퍼민트 차를 즐겨 마시는 고객들의 취향을 고려한 것이다.

주시후레쉬, 후레쉬민트, 스피어민트 등 일명 대형껌 3종은 국내 껌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린 제품들로 출시 당시 미국의 리글리, 아담스 등 세계적인 제품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김혜지 기자 heyji@

### 롯데백화점 축제 취소된 산천어 ‘밀키트’로

롯데백화점이 강원도와 손잡고 겨울 축제가 취소된 화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장 선다.

롯데쇼핑은 14일부터 31일까지 롯데온 내 롯데백화점몰에서, 15일부터 19일까지는 롯데백화점 노원점 식품관 매장에서 강원도 화천군의 싱싱한 산천어를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겨울 축제가 취소돼 판로가 막힌 화천 산천어의 소진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강원도 화천 겨울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손질된 상태의 산천어를 간편식으로 선보인다.

구이용 산천어 선어 세트(5마리)가 1만5000원, 조림이나 매운탕으로 조리 가능한 산천어 밀키트가 1팩에 1만1000원, 밀키트 2팩 세트(조림, 매운탕용 각 1팩)는 2만 원에 판매한다.

또한, 라이브방송으로 룻방과 먹방을 공개해 다소낫선 식재료인 산천어를 고객들이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라이브 방송은 14일 오후 6시 30분에 인기 유튜버 ‘밥급남’과 함께 화천군 북한강 인근 산천어 축제가 열리던 현장에서 진행된다. 밀키트 조리 방법을 소개하고, 완성된 산천어 조림과 매운탕 맛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주현 기자 jooh@

## 꼬북칩 초코츄러스맛, 1100만 봉 팔렸다

출시 4개월... 중국도 진출

오리온은 ‘꼬북칩 초코츄러스맛’이 출시 4개월 만에 누적판매량 1100만 봉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루에 약 10만 봉씩 판매된 셈이며, 누적매출액으로도 11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선보인 꼬북칩 초코츄러스맛은 출시 50일 만에 350만 봉 판매를 돌파한 뒤, 이후 두 달여간 판매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며 판매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33억 원의 월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2020년 하반기 최고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오리온은 꼬북칩 초코츄러스맛의 인기 요인으로 온라인 내 자발적인 입소문을 꼽았다. 출시 초기부터 입소문이 지속해서 확장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상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달콤한 군것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오리온에 따르면 꼬북칩 초코츄러스맛의 인기가 중국, 미국 등 해외로도 전해지



며 현지에서도 제품 출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오리온은 중국에서 현지 생산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스낵 본고장 미국 등지에서도 꼬북칩 초코츄러스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청이 지속하고 있어 수출을 검토 중이다. 오리온은 해외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맛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꼬북칩을 초코파이의 뒤를 잇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켜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오리온 관계자는 “SNS 등에서 입소문이 계속되며 올해도 변함없이 꼬북칩 초코츄러스맛의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다양한 신제품으로 전 세계 제과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 “백신, 물량 다음은 속도”... ‘코로나19 집단면역’ 총력전

정부, 노바백스와 백신 협상... 계약성공 시 총 6600만 명분 확보  
아스트라제네카 심사 중... ‘품목 허가·출하 승인 과정 단축’ 관건  
국내 개발 박차... 제넥신 연말 허가신청·셀리드 여름 상용화 목표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으로 방향을 잡았다. 백신 확보전에 이어 접종 속도전이 코로나19 종식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여유물량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백신 도입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을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도입을 확정할 4종의 백신에 더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대 3년 유통기한·국내 생산... 노바백스 백신 협상 중=노바백스의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됐다. 2~8도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며, 유통기한이 최대 3년에 달한다는 것이 장점점으로 꼽힌다. 대다수 코로나19 백신과 마찬가지로 2회 접종해야 한다.

아직 이 백신을 허가한 나라는 없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갔으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는지 검증하고 있다. 영국에서 먼저 실시한 임상 3상 중간 데이터는 1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2000만 회분)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우리

나라는 총 6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노바백스는 미국(1억 회분), 영국(6000만 회분), 인도네시아(5000만 회분) 등과 백신 공급을 약속했다.

노바백스는 국내 백신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지난해 8월 코로나19 백신의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을 국내에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도입 시기는 이르면 올 2분기가 될 전망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백신 원액과 완제를 모두 생산하고 있다”면서 “교대 근무를 하며 공장을 풀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조소 실사 임박... 내달부터 접종=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바로 접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해외 허가 및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고,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따라 접종 개시 시점이 결정된다. 정부의 목표 시점은 2월이다.

국내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중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진척 속도가 가장 빠르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출한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품질, 위생성관리계획 등 제출자료를 심사하고 있다.

개발사	방식	공급량	계약 현황	도입 시기	접종 비용(1회)	보관·유통
아스트라제네카	전달체	1000만 명	2020년 11월 27일 계약 체결	1분기	3~5달러	2~8도·6개월
화이자	mRNA	1000만 명	2020년 12월 23일 계약 체결	3분기	19.5달러	영하 70도 이하·6개월
얀센	전달체	600만 명	2020년 12월 23일 계약 체결	2분기	10달러	영하 20도·2년
모더나	mRNA	2000만 명	2020년 12월 31일 계약 체결	2분기	15~25달러	영하 20도·6개월
노바백스	유전자재조합	1000만 명	협상 중	2분기	16달러	2~8도·최대 3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1회 접종 0.5ml 접종 후 4~12주가 지나 같은 용량을 다시 접종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고령자에 대한 효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효과와 안전성을 별도로 분석·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 공급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를 평가하기 위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현재 실태조사를 이달 중 실시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가 임박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12일(현지시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조건부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29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3월까지 긴급사용을 승인하기로 했다.

◇탈출구는 ‘집단면역’...국내 후발주자들도 개발에 전력=코로나19 백신은 이례적으로 빨리 개발된 만큼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이나 면역 유지 기간 등에 대해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백신 개발사들은 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임상 시험으로 이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가 백신 2000만 명분을 확보한 모더나의 탈 잭스 최고의료책임자(CMO)는 12일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백신이 최소 1년간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3회차 백신 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지 시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백신 확보 경쟁에서 앞서나간 주요국들은 신속한 백신 접종에 착수했다.

통제와 추적에 통한 방역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만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해결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에서다.

특히 접종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스라엘은 3주일 만에 전 국민 20%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고, 2차 접종도 개시했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코로나19 백신 임상을 진행 중이다. 제넥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등 모두 임상 초기 단계다.

제넥신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임상에 착수했지만, 임상 1상 투약 완료 후 물질을 변경하면서 다시 임상에 들어갔다. 올해 말 허가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셀리드와 진원생명과학은 최근 첫 번째 환자 투약을 진행했다. 양사는 모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임상을 진행할 방침이며, 셀리드는 올해 여름에 백신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유혜은 기자 euna@

## 제약사, 백신 위탁생산·유통사업 쟁점

GC녹십자, 바이넥스와 업무협약  
경남제약, 콜드체인 운송 진출 선언

코로나19 백신 확보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이 백신 위탁생산과 유통 사업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에 이어 노바백스 백신까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가자, 제약·바이오업체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과 유통 사업 준비에 한창이다.

GC녹십자는 이달 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을 갖춘 바이넥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GC녹십자는 자사 제품의 경우 원료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하지만, 위탁생산은 완제품 생산만 맡는 만큼 바이넥스와의 협업으로 위탁생산 시에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GC녹십자와 협업에 나선 바이넥스는 현재 제넥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 물량을 위탁생산하는 등 코로나19 백신, 항체치료제를 포함해 바이오 의약품 CDMO 계약을 수주해 생산하고 있다. 바이넥스 측은 “바이넥스는 원료 생산에 강점이 있고 녹십자는 완제품 생산에 강점이 있다”라며 “아직 실질적인 협업 내용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전날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며 “mRNA백신과 DNA백신 위탁·수탁생산(CMO·CDMO)이 가능한 시설 기반의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8일 충북 청주시 오창공장에서 임승호(오른쪽) GC녹십자 부사장과 조진섭 바이넥스 CMO 사업 실장이 의약품 위탁생산(CMO)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팬데믹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러 회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며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의지를 드러냈다.

한미약품은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할 곳으로 평택 공단 바이오플랜트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현재 이 공단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다만 한미약품은 백신 위탁생산 경험이 없는 만큼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을 맡게 되면 기술이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백신 유통에도 관심이 쏠린다. 질병청은 조달청을 통해 백신 보관을 위한 냉동고, 접종에 필요한 주사기 등 장비·물품 구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각각 영하 70도 내외, 영하 20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냉동고가 필수다. 이에 질병청은 1월 중 냉동고 100대를 우선 구매하고, 1분기 안에 250대까지 설치 대수를 늘릴 예정이라

고 밝혔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물류 전문 계열사인 용마로지스는 코로나19 백신 유통에 대비해 정온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백신은 보관 온도를 맞추지 못하면 약효를 상실할 수 있는데 초저온 유통 체계가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뿐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역시 영하 2~8도에서 유통해야 약효가 유지된다.

이에 용마로지스는 입고부터 보관, 분류, 간선 수송, 배송까지 전 물류과정에서 의약품 및 백신 품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실온(1~30도), 상온(15~25도), 냉장(2~8도), 냉소(1~15도)의 조건대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배송하는 정온 배송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췄다.

용마로지스는 영하 70도 내외 온도 유지 조건이 있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유통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온 배송은 정온 설비를 장착한 특수 차량만으로 영상 1~30도 조건 유지가 가능한데, 특수 용기를 활용하면 영하 20~70도 조건을 유지하는 콜드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

경남제약도 이번엔 의약품 및 백신 유통 사업에 처음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경남제약은 지난달 15일 콜드체인 솔루션 전문기업인 한울티엘과 업무협약을 맺고 백신 등 의약품 운송 사업에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현재 경남제약은 한울티엘이 개발한 저장 용기에 특수 냉매나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영하 70도 이하부터 상온까지 온도를 맞출 수 있고, 저장 용기에 추적 장치를 붙여 실시간으로 백신 이동과정을 살펴보는 체계를 구축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LG화학, 신약 파이프라인 40개 발표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LG화학이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R&D 파이프라인 소개하고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의 도약 의지를 밝힌다.

LG화학은 13일 밤 10시 40분께 진행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석해 LG화학의 40여 개 신약 파이프라인 중 핵심 성과를 중점 발표한다.

손지용 생명과학본부장은 LG화학 세션에서 전 세계 바이오산업을 주도할 핵심 파이프라인인 대사질환 후보물질과 항암 및 면역질환 세포치료제 등을 공개한다. 먼저 ‘동일 계열 내 최고 의약품’을 목표로 개발 중인 통풍 치료제, 미국 식품의약품(FDA) 회귀의약품에 지정된 유전성 비만 치료제의 성과를 소개한다.

LG화학이 개발 중인 통풍 치료제는 통풍의 주요 원인인 요산(XO)의 과다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의 신약으로, 미국 임상 1상 시험 결과 식사와 관계없이 하루 한 알 복용만으로 요산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독성 및 심혈관 이상 반응도 확인되지 않아 기존 약물들을 뛰어넘는 효과와 안정성을 갖춘 신약의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올해 2분기 미국 임상 2상을 종료하고 신속히 시험결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유전성 비만 치료제는 식욕 조절 단백질인 ‘MC4R’을 활성화 시키는 기전으로, ‘계열 내 최초의 경구(먹는) 치료제’다. 편의성

이 높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같은 기전의 주사용 비만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만큼 LG화학의 개발 성공 가능성도 한층 더 커졌다는 평가다. 비만 신약 과제는 지난해 9월 미국 FDA 회귀의약품 목록에 지정, 후속 약물의 판매허가를 7년간 막을 수 있는 시장독점권 혜택도 부여 받은 바 있다.

글로벌 미개척 신약 분야인 NASH(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제의 경쟁력도 소개한다. NASH 신약 과제는 간염증 및 섬유화 관련 단백질인 ‘VAP-1’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현재 미국 임상 1상 단계에 있다. 전임상 시험 결과 겨냥 단백질에 대한 높은 선택적 작용을 확인했고 경쟁 후보물질의 임상 중단 원인이었던 약물 간 상호작용 위험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상용화된 신약이 없는 질환 분야인 만큼 개발에 속도를 내 2022년 1분기 임상 1상을 종료할 계획이다.

항암 및 면역질환 분야에서는 CAR-T 등 세포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LG화학은 면역 항암 세포치료제 플랫폼인 ‘CAR-T(T세포에 특정 암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탑재해 만든 세포치료제)’와 ‘iPSC(체내 모든 조직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 기술을 적용해 혁신적인 암 치료제 개발을 가속하는 한편, 치료용 유전자 적용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박미선 기자 only@

# 밴드 상단 근접한 코스피... 곱버스 열풍 부활할까

주가 떨어질 때 2배(곱하기)로 수익을 올리는 '곱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하락은 커녕 코스피 지수가 3100 선을 웃돌면서 '곱버스 개미'의 투자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들은 'KODEX200 선물인버스2X' 상품을 2656억 원어치(13일 마감 기준) 순매수했다.

곱버스는 코스피200지수를 역으로 2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코스피 지수가 떨어져야 더 큰 이익을 보는 상품이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2배 손실을 입게 돼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 곱버스는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1400선에서 빠르게 회

**'KODEX200 선물인버스2X' -67.43% 수익률 부진에도 개인, 울들어 2656억 순매수**

복되는 강세장에서도 개인들의 순매수 1위를 지켜왔다. 지난해 개인들은 곱버스를 총 3조5659억 원 순매수 했다.

곱버스에 투자하는 개미가 그 정도의 리스크를 고려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손실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KODEX200선물인버스2X ETF의 13일 기준 지난해 이후 수익률은 -67.43%로 부진하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개별 종목에서 차익을 실현한 동학개미들이 지수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 곱버스 투자를 늘리는 것 같다"며 "언제간 닥칠 조정을 기대한 투자인데 시장 흐름과 다를 수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한 개미로 변신한 동학개미가 올해 시장에서 선전한 만큼 동학개미의 선택이 옳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스마트해진 개인들이 무턱대고 곱버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의 장밋빛 지수 전망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인버스 레버리지 ETF로의 분산 투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평가다.

코스피지수는 흥국증권이 제시한 3000

**급등 장세에 조정장 대비 투자 "글로벌경기 회복·코로나 백신 추가 상승 여력 충분" 분석도**

은 이미 도달했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제시한 3200까지 터지겠다. 삼성증권이 올해 상향한 전망치 상단 3300에도 일시적으로 근접(3266.23)하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SK증권이 코스피가 35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 외엔 증권사들이 제시한 올해 코스피 목표 예상 범위 상단은 대체로 최저 2630에서부터 최고 3300 사이에 포진한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높아진 밸류

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상존하고 있다"며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점은 시장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글로벌 경기회복과 반도체 산업 호황기가 예상되면서 추가 상승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호석 SK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에 형성된 상장사 순이익 전망치인 133조 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ROE(자기자본이익률) 8.4%를 적용하면 코스피 지수는 PBR(주가순자산비율) 1.37배 수준인 3500포인트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우람 기자 hura@

## 삼성전자 역대급 배당 기대감... 들뜬 개미들

**28일 새 주주환원정책 공개 "영업이익 증가로 여력 확대" 연간 20조 배당 유지 가능성**



삼성전자의 새 주주환원정책 발표가 다가오면서 파격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28일 4분기 실적 발표 및 기업설명회(IR)와 함께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3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고심중인 증권가에서는 '역대급'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0월에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발생한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배당을 약속한 금액이 주당 354원(분기 기준), 연간 9조6000억 원, 3년 합계 28조8000억 원이다.

증권가는 지난 3년간 삼성의 당기순이익과 시설투자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잔여 재원이 약 7조~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일반주보다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이 금액을 전체 삼성전자의 주식수로 나누면 일반주 기준 주당 약 1000원 안팎의 특별배당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4분기 기본배당(주당 354원)과 특별배당을 합하면 주주들은 이번 주당 총 1300~1400원 안팎의 배당을 챙기는 셈이다.

최대 관심은 올해부터 바뀌는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갖는 위상과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배당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여기서 관건은 '잉여현금흐름(FCF)의 50%'인 기존 주주환원 규모를 상향할 것인지 여부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3년간 삼성전자의 연간 배당은 9조

6000억 원이었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은 연간 20조 원의 배당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배당 여력 확대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배당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일단 종전 3개년보다 높은 수준의 배당은 예상되지만, 배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은 자칫 인수합병(M&A)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에 주주환원정책을 바꾸면서 잉여현금의 50%를 계산할 때 M&A 비용은 넣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비싼 금액에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배당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판결에서 사법리스크를 탈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율은 현행 50%에서 추가로 강화되며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 위주의 정책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삼성전자의 사회·정치적 변수가 소강되고 나면 이러한 주주 가치 제고 속도는 기대 이상으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100만 화학' 찍었다...목표가 줄상향

(LG화학)

**3.95% 오른 100만원에 장마감 "석유화학·2차전지 성장 기대" 이베스트, 131만원 최고 목표가**

일자	목표가	증권사
1월 11일	131만 원	이베스트투자증권
1월 7일	125만 원	삼성증권
	103만 원	현대차증권
1월 5일	110만 원	SK증권
	120만 원	대신증권
12월 8일	100만 원	유안타증권

LG화학이 주가 '100만 화학' 시대를 열었다.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가파르게 빠르게 상승하자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도 전망치를 속속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 석유화학, 2차전지 사업 중심으로 외형성장이 이어질 것이라 분석이 우세하다.

13일 LG화학은 전 거래일 보다 3만 8000원(3.95%) 오른 100만 원에 장을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도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4분기 실적은 여수NCC 가동중단에 따라 시장기대치를 밑돌겠지만, 올해 전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 분석에서다. 가장 최근에 기업보고서를 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LG화학 목표주가로 131만 원을 제시했다. 이어 삼성증권 125만 원, 대신증권 120만 원, SK증권 110만 원 등의 목표치를 내놓았다.

이안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석유화학 부문에서 ABS, PVC 중심으로 업황 호조가 기대된다"며 "특히 석유화학 부문에서 ABS의 경우, 가전·전자 제품 중심 수요 증가, 증설 제한으로 인한 타이탄 공급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기 부문은 글로벌 EV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원통형 전지 15GWh 생산량 증설, 중대형 전지 출하 증가로 전년 대비 45% 이상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EV 배터리와 소형 배터리 이익 규모 역전도 주목하고 있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우선 배터리 사업이 최대 매출원으로 등극하며, 올해 예상 매출액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한 18조4000억 원 수준을 예상한다"며 "연결 실적 기준으로는 배터리 매출 비중이 2017년 17%에서 2021년 48%까지 몸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LG화학의 전지사업부문이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공개(IPO) 소식도 긍정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증시 입성이 점쳐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동차용 전지에 이어 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ESS) 전지와 소형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장가치는 최대 100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2차전지 사업을 분사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한 선제적 투자로 시장지배력 강화였다"며 "IPO 진행으로 피어그립 비교를 통한 2차전지 사업의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안나 기자 ljh@

## 삼성증권 "새해 첫주 4만명 신규 고객"

**매수종목 1위는 삼성전자... 해외 주식은 테슬라**

삼성증권은 4일부터 8일까지 약 4만 명이 신규 고객으로 들어왔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한 달 전체 신규 고객수의 배 수준이라고 삼성증권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기준 잔고 100만 원 이상의 '리테일 실질 고객' 수는 128만 명으로, 지난해 1월 말과 비교해 약 65.1% 늘어났다.

늘어난 고객 수에 따라 거래대금도 증가했다. 삼성증권의 이달 첫 주 국내 주식 거래금액은 지난해 1월 한 달 전체 거래금액의 1.4배였다. 거래 건수 기준으로는 1.2배 늘었다.

삼성증권 전체 고객은 이달 첫 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KODEX 레

버리지'를 제일 많이 샀고 나머지 30대부터 80대 이상 고객은 모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

해외 주식 중에서는 테슬라를 제일 많이 샀다. 80대 이상 고객들만 애플을 가장 많이 샀으며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테슬라가 1위였다.

삼성증권에 계좌가 있는 10억 원 이상 자산가들은 같은 기간 KODEX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매수 1위 종목이었던 'KODEX200 선물인버스 2X'와는 대조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 미래에셋 'TIGER K-뉴딜 ETF 시리즈' 순자산 1조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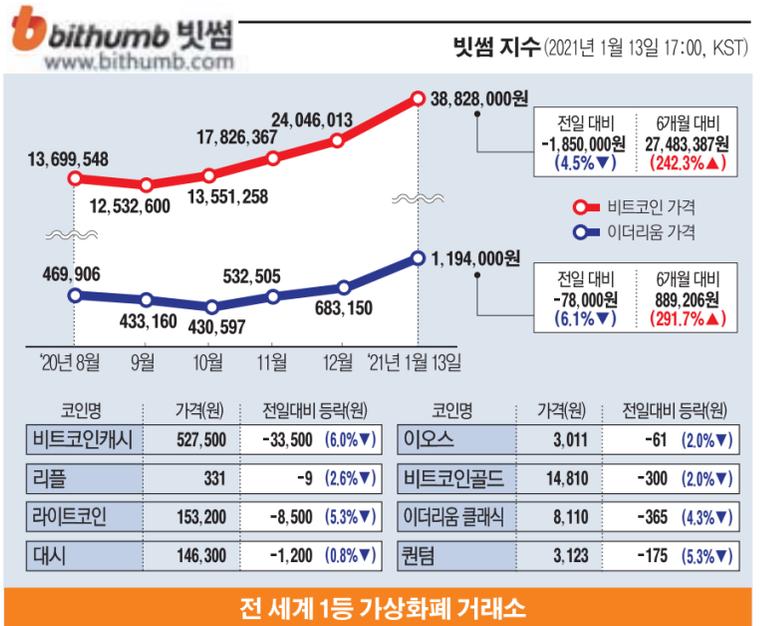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해 10월7일 상장한 'TIGER K-뉴딜 ETF 시리즈'가 순자산 1조 원을 넘었다고 13일 밝혔다.

'TIGER KRX BBIG K-뉴딜 ETF', 'TIGER KRX 2차전지 K-뉴딜 ETF', 'TIGER KRX 바이오 K-뉴딜 ETF',

'TIGER KRX 인터넷 K-뉴딜 ETF', 'TIGER KRX 게임 K-뉴딜 ETF' 총 5종으로 12일 종가 기준 순자산은 각각 3491억 원, 4867억 원, 764억 원, 511억 원, 373억 원 등이다.

이 중 개인 순매수 금액은 5종 ETF 합산

6000억 원 수준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TIGER K-뉴딜 ETF 시리즈'는 상장 당일부터 국내 ETF 시장 개인 매수금액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전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각각 125만 주, 119만 주, 37만 주, 29만 주, 24만 주다. 또한 설정 이후 수익률은 각각 27.66%, 62.86%, 28.03%, 7.51%, 9.08%를 기록 중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강남서 풀리는 9000억... 집값 '불쏘시개' 되나

〈올해 토지보상금〉

SH, 서초 성취마을·강남 구룡마을·강동 산단 3곳 보상 추진  
최근 땅보다 주거용 재투자... "인근 아파트에 집중 투자할 것"

올해 서울에서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개발지가 모두 강남권에 몰렸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서초구 방배동 성취마을 공공주택지구, 강동구 상일동 일반산업단지 등이다.

모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는 사업지들로 보상금 규모만 총 9000억 원에 달한다. 막대한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집값 등에 기름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업계와 SH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가장 먼저 토지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지는 서초구 성취마을 공공주택지구다. 이곳의 사업 면적은 방배동 일대 13만3004㎡ 규모로 지난해 11월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3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취마을은 1960~1970년대 강남 개발로 생긴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구룡마을과 함께 강남권의 노른자

땅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으로 꼽힌다. SH는 이곳에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등 81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만 4110㎡ 부지에는 지하 1층~지상 7층, 413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5월 착공해 2023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6만 6502㎡ 규모로 총 2838가구(임대주택 1107가구, 분양주택 1731가구)가 머물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구룡마을에 임대주택 100%로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나서면서 강남구 및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최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SH는 올해 6월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회 설치를 거쳐 9~10월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착공해 2025년까지 준공한다는 목표다.

강동일반산업단지의 경우 SH가 이달



초 감정평가법인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4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8월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동일반산업단은 상일동 일대 7만8144㎡ 부지로 지구 조인입도로 (3229㎡)를 합한 면적은 8만1373㎡ 규모다. 디지털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조성해 '베트타운'인 강동구를 자족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얼마 남지 않은 강남권 미개발 노른자위 부지들이 잇달아 보상에 들어가면서 향후 주변 지역 주택시장 등이 한바탕 들썩일 것으로 내다본다. 막대한 보

상금이 인근 부동산 쪽으로 집중 투자될 것이라 관측에서다.

토지보상 분석 플랫폼인 전국개발정보지존에 따르면 지구별 보상액은 구룡마을 4344억 원, 성취마을 3049억 원, 강동산단 1276억 원으로 추산된다. 총 8700억 원 규모로 토지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9000억 원~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토지 보상 후에는 보상금 상당수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2006년 당시 개발사업지구 131곳의 보상

금 6조6508억 원의 절반가량(48.9%)은 부동산을 사는 데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판교신도시 개발로 풀린 보상금 약 30조 원의 37.8%도 부동산에 재투자됐다.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는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기존에는 주로 땅을 사는 데 다시 쓰였지만 최근에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많이 흘러드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현금성이 좋고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에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언제

어디서나

HOME  OFFICE

##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채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50%      90%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이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 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청구, 웹발급, 도매인)

**DOUZONE** dt.wehago.com

비대면 서비스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전용 상담 전화 **02.6233.2000**

## '공급 폭탄' 우려·규제지역 지정 여파에도... 인천 청약열기 더 뜨겁다

'구도심' 부평 1순위 마감 잇따라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 분양한 'e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와 '부평 캐슬앤더샵 퍼스트'가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인천은 지난해 4만9000가구에 이어 올해 5만 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예정됐다. 또 지난해 6·17 대책 이후 인천 전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공급과다 우려와 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청약 성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인천 내 올해 첫 분양 단지가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면서 올해 청약시장 강세를 예고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1순위 해당지역 신청에 1만2135명이 청약통장을 단졌다. 최고경쟁률은 전용면적 84㎡A형에서 기록한 75.13대 1로 48가구 모집에 3606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8대 1을 기록했다. 전년 대부분 평형에서 청약 접수가 마감돼 이날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은 전용면적 59㎡형 일부 타입만 진행된다.

부평 캐슬앤더샵 퍼스트는 전날 진행된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신청에서 모든 주택형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이 단지는 581가구 모집에 총 1만2101명이 청약 신청했다. 최고 경쟁률은 53.9대 1로 68가구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84㎡A형에 3663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0.8대 1을 기록했다.

인천은 지난해 수요 대비 공급 물량과다로 대표적인 공급 과잉 지역으로 꼽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는 4만9021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는 4만 9795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9년(3만7208가구)과 2018년(1만 4749가구)보다 많이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올해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전체 공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수익 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가득하다. 올해 내내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수요가 인천으로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작년 전셋값 상승률 1위는 '경기 하남'

3.3㎡당 1755만원으로 50.2% 올라... 전국 평균 17.3% 상승

지난해 전국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하남시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3.3㎡당 1117만 원으로 연초(952만 원)보다 17.3% 상승했다.

지난해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하남시다. 1월 3.3㎡에 평균 1167만 원이던 하남 아파트 전셋값은 연말엔 1755만 원으로 50.2% 상승했다.

수도권 전철 5호선이 하남까지 연장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 데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 1순위 청약 자격을 받으려는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을 향했기 때문이다. 연초 3억1000만 원이면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던 하남시 신장동 '대명강변타운' 전용면적 84㎡형은 12월엔 그 두 배에

작년 3.3㎡당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상위 5곳 (단위: %)

1위 경기 하남시	50.2
2위 세종 세종시	46.4
3위 경기 광명시	39.7
4위 경기 화성시	39.3
5위 경기 용인시	38.9

※출처: KB부동산 리브온, 경제민첩

가까운 6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전셋값 상승률 2위는 세종시다. 3.3㎡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월 582만 원에서 851만 원으로 46.4% 올랐다. 하남시와 세종시 다음으로 경기 광명시(39.7%), 화성시(39.3%), 용인시(38.9%), 성남시(32.1%) 순으로 전셋값 오름폭이 컸다. 박중화 기자 pbell@

# “악마 같은...” 정인이 양부모 재판 시민들 분노

## 신천지 이만희 1심 징역 3년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

### 호송차 향해 발길질·눈덩이 투척... “경찰은 왜 살인자 지키나” 법원 앞서 강력 처벌 촉구... 檢 살인 혐의 적용하자 ‘환호성’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항의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안팎은 시민들의 분노로 가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정인 양의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본 법정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양천구에 있는 남부지법 정문에 모여 양부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분위기가 잠깐 동안 격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석한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주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었다. 김모 씨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정서적

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고통을 받은 게 정말 안타깝다”며 “양부모에 대한 최고 형량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청권을 얻지 못한 시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법정에서 들어간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계하는 재판에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검찰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자 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면서 “입양모 사형”, “입양모 살인죄” 등 구호를 외쳤다. 양부모의 재판이 끝나자 한 방청객은 장 씨의 이름을 부르며 “악마 같은 X”, “아이 살려내!”라고 소리질렀다. 시민들은 안 씨가 법원 밖으로 나오자 “살인자”, “개XX”라고 욕을 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안 씨는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건물을

나와 곧바로 차를 타고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안 씨가 탄 차량을 둘러쌌다. 법원 밖 도로까지 차량을 둘러싼 채로 앞을 가로막던 중 한 시민이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문 앞에 대기 중이던 시민들은 장 씨가 탄 호송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자 창문을 두드리고 눈덩이를 던졌다. 경찰이 차

량의 이동을 위해 버스를 에워싸자 일부 시민은 “경찰은 정인이를 지켜야지 왜 살인자를 지키느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호송 차량이 모습을 감출 때까지 “장XX 살인자”라고 외치기도 했다. 장 씨와 안 씨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김대영 기자 kdy@, 김종용 기자 deep@, 박기영 기자 pgy@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3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총장이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중 일부를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기영 기자 pgy@

# “약촌오거리 ‘누명’ 옥살이 16억 국가배상”

## 파주 LGD, 화학물질 유출... 2명 중상·5명 경상

### 재판부 “무고한 자에 위법한 수사”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에게 13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최 씨의 어머니에게 2억5000만 원, 동생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는 최 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 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 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세워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최 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씨의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오히려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처시키도록 유도해 증거를 만드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 씨에게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흥기에 질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16세 소년 최 씨는 경찰의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결국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만기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종용 기자 deep@

### “2차 피해 발생 않도록 최선”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근로자 2명이 중상을 입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13일 LG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경 파주사업장 P8 공장내에서 배관 연결 작업 중 TMAH(수산화테트라메틸 암모늄)가 누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가공 공정에서 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TMAH는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독성이 치명적인 물질이다. LG디스플레이는 사고 발생 즉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소방서·경찰서에 사고

신고했으며 119 구급대와 환자 응급처치 후 인접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파악된 인명피해는 중상 2명, 경상 5명 등 총 7명이며 LG디스플레이는 즉각적으로 관련 화학물질 밸브차단과 긴급 배기가동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사고현장을 수습했으며, 약 25분 만인 이날 오후 2시 45분께 가스 누출 차단 작업을 완료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한 임직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박영사  
신간도서

##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웬스엔케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광고심의필 : 2020-1540-000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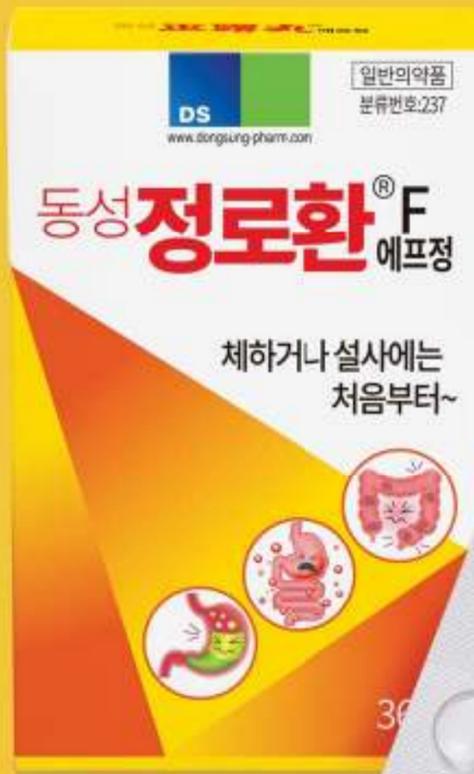
체함  
배함  
설사



# 넌 끝났어

뱃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같은 증상들을 제압한다~

동성제약 **정로환F**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소비자 상담전화 : 080-001-0921

# “아동학대 대응 ‘옥상옥’, 현장은 포기상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행안부·복지부·지자체 3곳 분산 효율성 떨어지고 책임 떠넘기기 ‘사람이 사람 들여다보는 일’... 권한 주고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세 차례의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김예원(사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 양의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 처음 접수됐다.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아이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본 소아과 의사가 A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 기관은 ‘방입’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후 A 기관은 여전히 방입으로 판단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인 양 가정을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현재 아동학대 현장 대응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

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가 3개 기관에 분산되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좋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인 양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이달 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 회의’를 열었다.

김 변호사는 “국무총리와 관계기관장 회의 결과를 보면 각 주체의 특성과 업무 분담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각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고 ‘옥상옥’으로 대응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각 기관에 조사와 사건 처리, 피해자 지원 등 모든 업무를 맡기는 패턴이 10년째 반복되니까 현장은 포기 상태”라며 “나 있을 때만 사건 터지지 마라”, ‘어차피 떠날 사람이나 조용히 넘어가자’는 식의 참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사건 담당 기관들이 전문성을 키울 시간도 없이 업무를 몰아주고 있다”며 “아동보호기관에서 하던 아동학대 사건 조사를 전담 공무원에게 하라는데 조사 주체가 여러 곳이 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응 시스템을 갈아 엮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자는 이야기”라며 “각 주체마다 장점이 있으니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아동학대 대응 기관의 전문성을 키워주고 법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부분을 덜어줘야 한다”면서도 “이 일만 하는데 대신 잘해야 해”,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못하면 각오해’라는 마음가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다움’조차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의 불균형이 극심한 사건”이라며 “인간의 선의에 맡겨서 ‘잘 키우겠다’고 생각하기 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아동을 학대하면 철퇴를 맞는다’는 생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용 기자 deep@

# 요즘, 북한

佛 사진작가, 최근 3년간 5차례 방북 사진집 펴내



프랑스 사진작가 스테판 글라디외의 사진집에 담겨진 북한의 모습. 위 왼쪽 사진부터 평양 동물원에서 만난 젊은 부부 가족, 평안남도 순천시 인근에 사는 농부의 가정집에서 촬영한 어머니와 아들, 평양에서 촬영한 대학 교수의 가정집.

2017-2019년의 북한의 최신 모습이 공개됐다.

프랑스 사진작가 스테판 글라디외(사진)가 최근 3년간 북한을 다섯 차례 방문하면서 북한의 모습을 촬영해 사진집을 출판했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 사이 총 다섯 차례 북한을 방문해 짧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보름씩 북한에 머물렀다. 글라디외의 촬영현장에는 언제나 북한 당국이 지정된 가이드 2

명이 동행했다.

평양, 개성, 원산, 남포, 사리원, 금천 등에서 만난 수많은 북한 주민을 카메라 앞에 세우고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약속한 듯이 하나같이 정면을 바라보고 렌즈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고 글라디외는 덧붙였다.



기정아 기자 jjonga1006@

# 빌 게이츠 “고마워요,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에 소아마비 백신 개발 감사 편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왼쪽 사진)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공동이사장이 신학철(오른쪽) LG화학 부회장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편지에서 소아마비 사백신 개발 성공에 대한 축하와 더불어 아동 공중보건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백신은 실제 바이러스를 죽이거나(사백신) 독성을 없애는(생백신) 방식으로 나뉜다. 사백신은 기존 생백신보다 안전성이 높다. LG화학은 빌 게이츠 이사장이 보낸 편지를 13일 사내 디지털 사보에 올렸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LG화학이 2017년부터 유폴리오 및 유폴리오 기반 6가 혼합백신 과제에 총 5760만

달러(약 630억 원)를 지원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신 부회장에게 “소아마비 질환 해결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에 대한 헌신과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소아마비 사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며 “유폴리오노는 향후 5년간 최소 1억8500만 회분까지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소아마비 감염 근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승인을 받은 유폴리오노는 전 세계 아동 공중보건 문제 해결은 물론 LG화학과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의 파트너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LG화학이 이번 소아마비 백신과 같은 개발을



지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 부회장은 회신 서한을 통해 “전 세계 소아마비 질환 해결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과학을 인류의 삶에 연결한다’는 LG화학의 비전과도 맞닿은 중대한 목표로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른 질병에 대항하는 백신도 개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지난해 12월 말 WHO로부터 ‘약독화 사백신(Sabin IPV)’으로는 세계 최초로 국제 구호기구 백신 공급을 위한 필수 심사인 PQ(Pre-Qualification) 승인을 받았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 ‘과학기술 거목들의 삶’ 영상으로 만난다

과기정통부, 69명 영상 제작...석주명·이호왕 등 8명 우선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와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우리 과학기술인의 삶을 미래세대와 국민에게 알리고자,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과학기술의 거목들’ 영상 시리즈를 제작·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8편의 영상을 시작으로 총 69인의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순

차적으로 영상을 제작·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될 8인의 과학기술유공자는 고(故) 석주명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부장, 윤종용 삼성전자 전 부회장, 이호왕(사진)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고(故) 이휘소 페르미기속기연구소 초대이론물리부장, 고(故) 장기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명예원장, 김모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고(故) 이종욱 WHO 제6대 사무총장, 고(故) 김정식 대덕전자 명예회장 등이다.

‘과학기술의 거목들’ 시리즈는 과학기술 유공자 홈페이지와 사이언스를 등을 통해 14일부터 2월 8일까지 주 2회(월, 목) 공개될 예정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영화진흥위 위원장에 김영진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영진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영진위는 12일 ‘2021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김 부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2년 1월 3일까지다.



이다. 영화주간지 ‘씨네21’ 기자와 ‘필름2.0’ 편집위원, 전주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로 활동한 김 위원장은 현재 명지대학교 영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재명 기자 lij0403@

# 인사

- ◆한국관광공사 ◇상임이사 선임 △국민관광본부장 노점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감사부장 조용철
- ◆신한금융투자(신임) ◇지점장 △계양 박진성 ◇부사장 △결제업무부 조경희

# 부음

## 日제국주의 비판 소설가 한도 가즈토시

‘일본의 가장 긴 하루’ ‘노몬한의 여름’ 등으로 유명한 일본 작가이자 역사소설가인 한도 가즈토시(半藤 一利)翁이 별세했다. 향년 90세. 13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한도 웅은 전날 도쿄 세타가야(世田谷)구에 있는 자택에서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도쿄 태생인 고인은 도쿄대 문학부를 졸업하고 출판사 ‘분게이슌주’(文藝春秋)에 입사해 주간지 ‘슈칸분순’(週刊文春)과 월간지 ‘분게이슌주’ 편집장과 전무이사를 지냈다. 1965년 동료들과 함께 집필한 ‘일본의 가장 긴 하루-운명의 8월 15일’을 논픽션 작가 ‘오야 쇼이치’ 이름으로 발표한 후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NHK 등의 역사 프로그램에 단골로 출연해 ‘쇼와사의 이야기꾼’으로 자리매김한 고인은 야스쿠니(靖國)신사의 A급 전범 합사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 후 제정한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기도 했다. 연합뉴스

## 미국 카지노 제왕 쉐던 애덜슨

세계 최대 카지노 기업라스베이거스 샌즈의 창업자 쉐던 애덜슨이 향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애덜슨이 전날 밤 비호지킨 림프종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애덜슨은 1933년 미국 보스턴에서 택시 운전사 아들로 태어나 330억 달러(약 36조 원·포브스 추정)의 순자산을 보유한 부호가 된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그에게 성공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컴퓨터 업계 박람회 ‘컴덱스’였다. 1979년 그의 나이 불과 16살에 동업자들과 시작한 박람회 소위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이후 싱가포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등에 잇따라 새 카지노 호텔을 연 애덜슨은 2014년 블룸버그역량지수에서 408억 달러 재산으로 세계 8-9위 부자가 됐다.

애덜슨은 재계에서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의 대선에서 모두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 ▲장석찬 씨 별세, 서정석(신한금융투자 대체투자1본부장) 씨 부부상 = 1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02-2227-7500
- ▲이복순 씨 별세, 서상호(서예가) 씨 부인상, 서양선·희선(LG헬로비전 센터장)·영경(위드정보이사)·혜선(대진대 교수)·대경(플렉스플레이코리아·식객촌 대표이사) 씨 모친상, 김구·강기준·조현래(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씨 장모

- 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02-2227-7580
- ▲오우현(신남포남서교회 전 소장) 씨 별세, 오원호(뉴욕·JP모건)·문길(풍산그룹 홍보팀장)·혜성(광주) 씨 부친상, 최동호(광주 다독다독도서관 관장) 씨 부부상, 이애숙(미국)·여상현(북서울미술관) 씨 시부상 = 13일,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02-2258-5940

자본시장 속으로



이 대 우  
로보피아투자자문 대표

AI를 필두로 다양한 신조어로 표현될 새로운 산업은 폭발적인 융합과 혁신적인 콘텐츠로 인류에게 풍요와 동시에 또 다른 시련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수세기의 경험을 토대로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형인 제4의 혁명을 넘어 또 다른 진화를 이어갈 것이다.

그 어느 날 인류는 불을 만나게 되었다. 그로 인한 탁관절의 퇴화로 두뇌는 팽창하였으며, 인류의 신체구조와 최초의 융합인 '도구의 시대'를 맞이한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의 철을 만나면서 고대왕국을 형성하였고, 근대화는 시작되었다. 그 시점 이후 가장 긴 주가 데이터인 다우 30 지수(1884년 7월 3일)를 통해 그 변화를 되돌아보고 다음 단계의 산업 재편을 살펴 보자.

인류는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으나, 다양한 파괴적 혁신의 시도로 오늘을 맞이하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에도 다시 한번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류의 첫 도전은 미숙함으로 큰 충격을 맞이하며 수많은 경제 이론이 충돌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29년 미국을 강타한 경제공황이다. 이는 단순히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업공황을 넘어서 농업공황, 금융공황,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통화

금융 발전사로 본 제4의 혁명

공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이뤄져 '대공황'으로도 불린다. 만성적인 과잉생산과 과도한 실업자의 양산은 지수 급락을 이끌었다.

이러한 위기는 케인스의 유효수요 창출 이론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뉴딜정책)으로 빠르게 극복했다. 이후 에너지원인 석유와 철의 융합. 즉, 자동차산업을 토대로 주가지수는 부활했고 1960년 초반까지 25년 이상의 대세 상승을 이뤘다.

다음 위기는 인구의 증가와 석유 수요의 폭발로 시작된 1, 2차 석유파동이었다. 1973년 아랍 이슬람 문명권의 여러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아랍 지역의 산유국들이 석유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인플레이션과 불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후 1978년 이란의 석유생산 축소와 수출 중단으로 세계는 또 한차례 석유파동을 직면하게 되었다.

전 세계는 물가조절과 적응을 위해 다양

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냈다. 1961년 양도성예금증서(CD), 1970년 머니마켓펀드(MMF), 1977년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이 대표적이다. 변동환율제와 금리자유화 등 제도의 혁신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다.

그 직후, 글로벌 24시간 투자시대의 등장과 정보기술(IT)의 결합으로 1982년 이후 새로운 대세 상승 국면이 시작됐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 보급과 함께 폭발적인 상승 국면이 20년간 이어졌다.

2000년 이후에는 IT버블, 유럽사태, 미국 모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 기간을 맞이했지만, 현재 지난 100여 년간의 다양한 기술적인 융합으로 또 다른 기회가 시작되고 있다.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필두로 다양한 신조어로 표현될 새로운 산업은 폭발적인 융합과 혁신적인 콘텐츠로 인류에게 풍요와 동시에 또 다른 시련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수

세기의 경험을 토대로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형인 제4의 혁명을 넘어 또 다른 진화를 이어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2000년 다보스포럼 이후 시작된 4차 산업혁명명은 2008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개별적인 장비(디바이스)가 하나로 융합되어, 누구나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공유하는 시대가 됐다.

2020년 코로나19의 촉발로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집중적인 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산업의 성장을 예측해야 했지만, 현재는 누구도 4차 산업의 성장을 부인할 수 없다. 단지 속도의 문제만이 남았다.

단순도구에서 시작한 인류의 역사는 무수한 파괴적 혁신자의 등장과 융합을 통해 도전을 극복했다. 100년 사이클의 종착지인 2031~33년까지 새로운 산업의 재편을 통한 자산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이이다.

CEO 칼럼



김형산  
더스윙 대표

벤처 투자자와 스타트업 창업자의 동상이몽

벤처 투자자는 아직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창업자에게 돈을 주고 지분을 받아간다. 창업자보다 약간은 더 수익 배분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으나, 성공하면 큰돈을 벌지만 실패하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와 창업자는 한배를 탄 셈이다. 항해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로 때로는 잘 갈 수 있던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뚝단배로 대서양을 건너기도 한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첫째, 투자자는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기 쉽다. 대개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운용하는 투자자는 수년 내 자금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에 자기 인생을 건 창업자는 투자자가 보기엔 마치 이 회사가 영원 불멸하다고 생각하는 듯이 장기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창업한 지 4개월, 이제 막 베타서비스를 론칭했을 때였다. 당시 한 투자자는 "아직 매출도 없는데 개발자가 4명이나 되니 팀원을 감축할 것"을 권유했다. 개발팀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게다가 이제 막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애러와 고객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밤을 새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이 투자자는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하는 걸까?

자신은 미래의 비용이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100원을 써서 만들고 있는 재고 자산이 미래에 누군가에게 팔리면, 120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 재고 자산은 100의 비용으로 계산된다. 문제는 지금 쓰고 있는 100원을 즉시 비용인지 자산인지는 그 '미래'가 얼마나 먼 미래인지에 따라 다르다. 창업자에게 개발팀은 단연코 자산이다. 그러나 투자자는 여러 리서치와 경쟁사, 또는 투자자의 직감으로 이 사업의 수익성에 의심이 생겼고 단기적으로 살아남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투자자에게 응당 개발팀은 비용이 맞다.

둘째,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리스크를 싫어하고 리턴을 좋아하지만 관점이 다르다. 투자자는 '동일한 리스크에서 최대의 리턴'을 찾도록 트레이닝을 받는다. 창업자는 직접 리턴 목표치를 맞추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행한다. 투자자는 최적의 점 하나를 유추하기 위해 노력하고, 창업자는 시장, 경쟁, 자기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무제한의 리스크-리턴의 가능성 중 최선만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투자자는 리스크에 예민하고, 동일한 위험을 진 곳이라면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것을 찾아 최대의 리턴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창업자는 직접 설정한 목표를 보다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 (확실하다는 것은 리스크가 적다는 뜻이다) 다양한 시도를 한다. 소비자 경험을 더 좋게 하거나, 경쟁자가 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규모로 압도하기 위해 가진 자금을 모두 털어 넣거나, 선제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기도 한다. 투자자가 보기에 확실하지 않은 리턴에 리스크가 높은 행위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셋째, 투자자에게 차별화는 매우 중요하다. 투자자는 1년에 1000개 회사를 검토하고 약 100개 회사를 만나 1~2개 회사에 투자한다. 지금 만나고 있는 회사는 어디선가 만난 회사와 비슷하며, 분명 경쟁사가 10곳은 있을 텐데, 왜 여기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 맥락에서 설득받고 싶을 때 '경쟁사가 따라 할 수 없는 차별화 포인트'를 묻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자는 그동안 아무

도 제공하지 않았던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적어도 같은 제품, 서비스라도 그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제공한 적이 없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먹히는지, 그 규모가 얼마인지, 만약 성공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

위 세 가지 차이는 차이일 뿐 옳고 그름은 알 수가 없고 증명도 어렵다. 다만, 투자자와 창업자가 한배를 탄 한 팀이라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첫째 투자자와 창업자는 '미래'가 언제인지를 투자 전후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창업자는 투자자의 리스크 조언을, 투자자는 가변하는 리스크-리턴 곡선을 이해하기 위해 창업자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 셋째, 창업자는 투자자가 정말로 궁금해 하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 방법의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얻고 투자를 받는다 면, 뚝단배로 지구 한 바퀴를 돌 수도 있을 한 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나도 내가 만든 뚝단배로 지구 한 바퀴를 돌 투자자를 찾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루이스 캐럴 명언  
"수학의 매력은 결과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데 있다."

본명은 찰스 루트위지 도즈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영국 동화작가 겸 수학자. 독신인 그녀는 과묵한 성격으로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엄격한 규칙으로 정한 일상을 고집스레 반복했다. 모든 일상을 기록한 약 9만9000통의 편지를 보관했던 그녀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1832~1898.

☆ 고사성어 / 일자천금(一字千金)  
글자 한 자에 천금이라는 말이다. 빼어난 글자나 시문을 비유한다. 사기(史記) 여불위열전(呂不韋列傳)에 나온다. 3000명에 달하는 빈객을 집에 모시고 후대한진(秦)나라 여불위는 빈객들에게 자신들이 견문한 바를 집필하게 해 26권 20만 자가 넘는 책 '여씨춘추(呂氏春秋)'를 냈다. 여불위가 이 책을 수도 함양(咸陽) 성문 앞에 진열하고, 선비나 빈객을 초대해 '여기에 한 글자라도 덧붙이거나 깎을 수 있는 자는 상금으로 천금을 주겠다'고 해 이 말이 나왔다.

☆ 시사상식 / 민달팽이세대  
'민달팽이'는 겹대기 집이 없는 달팽이. 이에 빗대어 젊은이들이 집 사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현실을 상징한 신조어이다.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가중으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어려움을 대표하는 말이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사랑  
'상대하여 생각하고 헤아리다'의 뜻인 사랑(思量)이 변음되어 '사랑'으로 쓰이게 되었다.

☆ 유머 / 아이없네  
남자가 딸꼭질에 잘 듣는 약을 달라자 약을 찾는 척하던 약사가 갑자기 남자의 뺨을 때렸다. 화가 난 남자가 "뭘, 뭘하는 겁니까?"라고 소리쳤다. 약사가 "딸꼭질 정도에 약을 먹는 것은 몸에 좋지 않아요. 보세요. 이제 딸꼭질이 그쳤죠?"라며 의기양양해 했다.

남자의 대답. "아니요! 내 집사람이 차 안에서 딸꼭질을 하고 있단 말예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최혜림 국제경제부/rog@

올 한 해 '뚝라이팅'만은 피할 수 있길

기나 우려, 충격으로 꾸며진 한 해 동안 사람들은 불행한 뉴스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중독되고 말았다.

이 단어가 뇌리에 박힌 이유는 그동안 썼던 불행한 기사들이 머리를 스친 탓이다. 일부러 그런 내용만 골라 쓴 것은 아니었는데도 기사 속에서 묘사된 세계는 대부

분 암울했다. 지난해 여름 기후변화에 아시아는 홍수로, 북미와 호주는 재앙에 가까운 산불로 몸살을 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2차, 3차 확산을 거듭하다 급기야는 변이 바이러스로 진화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극도의 정치적 혼란을 보이

더니 결국 국회의사당이 성난 시위대에 점령당했다.

최근 6개월간 쓴 기사 중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은 세계 억만장자들의 기부 행렬 정도다. 이쯤 되면 뚝스크롤링이 아닌, 암울한 기사 쓰기라는 의미의 '뚝라이팅(Doomwriting)'이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다.

다행히 올해는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보급 계획이 빠곡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물러나며 불확실성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연내 코로나19 종식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밝은 기사 몇 가지 쓰며 뚝라이팅이 올해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왔던 옥스퍼드랭귀지가 2020년에는 무려 20개의 단어를 선정했다. 이는 올해의 단어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가 워낙 다사다난했던 터라 단어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코비디어트(Covidiot)'나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낯자 개념이 없어지는 '블러스데이(Blursday)' 등 신조어가 특히나 많았지만,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뚝스크롤링(Doomscrolling)'이었다.

뚝스크롤링은 불행을 뜻하는 '뚝'과 화면을 아래위로 움직이는 '스크롤링'을 합친 신조어로, 암울한 뉴스만을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기사 제목이 위



안병익의  
유러피언 드림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④ EU·中 포괄적 투자협정 체결

#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 유럽과 중국의 손잡기 '인권·민주주의' EU의 가치 시험대



시진핑(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 중국 국가주석,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달 30일 화상회의를 통해 EU와 중국의 투자협정 체결을 환영하고 있다. 브뤼셀/AFP연합뉴스

“중국의 외교적 승리다.” “유럽연합(EU)이 20일 취임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목에 비수를 찔렀다.”

구급 30일 EU와 중국은 포괄적 투자협정(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CAI)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한참 못 미치지는 조약이지만 EU가 중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고, 이 조약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의 대중국 정책을 약화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크다. 이런 우려는 기우라고 본다. EU는 신임 바이든 행정부와 대중국 공동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 유럽은 경제적, 중국은 정치적 이득 챙겨

유럽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하고 첨단기술을 의무적으로 이전해 줘야 했다. 첨단기술 '따라잡기'에 나선 중국 정부가 서방 기업들의 투자 허용 조건으로 이를 필수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합의된 CAI는 이런 조건을 철폐했다. 중국 기업이 유럽에 투자할 때와 같은 조건을 중국에 투자하는 유럽 기업도 누리게 됐다. 유럽 기업들은 14억의 인구에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 접근권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번만이 아니다. 공정경쟁 규정과 함께 국제기준에 적합한 환경 및 노동 기준도 포함됐다.

중국은 국영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시장질서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협정은 중국 국영기업의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과 보조금 조항도 포함했다. 국영기업이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와 판매에서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했으며 유럽 기업이 이 조항 준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 조항도 이와 유사하다. EU는 국영기업과 보조금 조항을 들어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협정 가운데 가장 야심찬 조약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협정으로 독일의 자동차 기업과 유럽의 금융 서비스 분야는 큰 수혜자가 될 듯하다. 폭스바겐이나 BMW와 같은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중국 기업과 합작할 필요가 없다. 은행업의 합작 규정과 주식 투자 최고 한도 제도 철폐되고 주식과 보험 거래도 가능해졌다.

중국은 EU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을

들어주는 대신, 미국이 주도해온 대중국 포위망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포함한 14개국과 지난해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보호무역에 열중하고 양자 협정에 열중한 틈을 타서 중국이 유리한 통상 및 투자 협정을 잇따라 체결했다. 이 때문에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CAI를 중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 유럽의회 "자유·인권 무시" 수정 요구

CAI는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럽의회는 이번 협정이 중국과 홍콩의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도외시한 협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장지역의 위구르인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제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 중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그리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정의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조항만이 있다. 협약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분쟁 해결 매커니즘이 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게 유럽의회의 분석이다.

유럽의회에서 제3국과의 무역과 투자 협정을 검토하는 국제무역위원회의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6일 홍콩에서 53명의 민주 인사와 정치인들이 체포된 것을 지적하며 “이런 행동은 CAI 정신을 위반한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년 7월에 개원한 유럽의회는 중도 좌파와 중도파, 녹색당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한다. 이들은 중국이 최소한 ILO 핵심 협약과 강제노동 금지 조약 비준에 관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해야 이 협정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美·EU 대중국 정책 공조엔 문제없을 듯

EU는 트럼프 취임 후 계속해서 대중국 공동정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호무역과 지지층 규합에 우선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이런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 지난해 1월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줄이는 조건으로 중국은 2000억 달러가 넘는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EU는 이번에 체결한 CAI가 위의 1단

계 합의와 유사하다며 대중국 정책 공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 취임할 바이든의 행정부는 매우 당혹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제이크 설리반은 EU와 중국의 협정 타결이 임박해지자 EU에 타결을 늦추고 협의하자고 요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CAI는 미국과 EU의 대중국 공조를 파괴할 사안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약한 대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복귀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에 동참한다면 EU와의 대중국 공동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EU가 불 때 이번 협정은 경제와 통상에 초점을 뒀다. 무려 7년이 걸려 겨우 합의에 이르렀다. 작년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이던 독일은 원래 9월 라이프치히에서 중국과 EU 정상회담을 열어 이 협정을 체결하려 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협상의 진전이 없었다. 협상 막판에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전에 CAI 타결을 원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순회의장국의 우선 순위로 정했던 이 협정을 매듭짓고자 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가 신임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하자며 이 협정의 타결을 늦추자고 요구했음 뿐이다. 유럽통합을 이끌어 온 독일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EU 회원국들이 이번 협정을 조기에 타결하고자 했다. 이 협정에는 또 EU가 역점에 뒤 온 중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무역협정과 인권·민주주의 연계 어떻게

이제 비준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협정 개정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투자협정이 인권 개선을 위한 지렛대가 아니라고 본다. 반면에 유럽의회는 EU의 가치가 인권과 민주주의인데 이를 무시한 무역이나 투자협정은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 무역협정과 인권, 민주주의 연계는 당연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협정이 EU의 이익을 유지하고 핵심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한 유럽의회의 요구가 투자협정에 반영돼야 한다. 중국이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ILO 핵심 규약을 이행할 구체적인 이행표를 제시해야 인권과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EU가 체면이 선다.

팻캐스트 '안뎀의 유료톡' 제작·진행자, '하룻밤에 읽는 영국서' 저자.

## 사설

### 일자리 최악 감소, 기업활력 말고 해법 없다

작년 국내 고용시장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지표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우려했던 대로다. 취업자수, 실업자 및 실업률, 고용률 등의 모든 수치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고용절벽'이 심화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26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취업자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만7000명) 이래 11년 만이고, 감소폭은 1998년(-12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였다.

고용의 질도 크게 악화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생 일자리가 많은 60세 이상(37만5000명)만 늘어났을 뿐, 경제활동의 중추인 30대(-16만5000명)와 40대(-15만8000명), 또 20대(-14만6000명), 50대(-8만8000명) 등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큰 폭 줄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 업종인 도소매(-16만명), 숙박·음식업(-15만9000명), 교육서비스(-8만6000명)의 감소폭이 컸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인 제조업(-5만3000명)의 감소세도 뚜렷해졌다. 반면 재정 일자리가 다수인 보건·사회복지서비스(13만명)와 공공행정(3만6000명), 코로나 이후 택배수요 급증에 따른 운수창고(5만1000명) 등이 늘었다.

작년 실업자는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이었고, 실업률은 0.2%포인트(p) 오른 4.0%로 치솟았다. 이 또한 각각 2000년, 2001년 이후 최고치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잠재적 실업자인 일시휴직자가 83만7000명으로 한 해 동안 43만명이나 늘었다는 점이다. 198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사태의 끝은 보이지 않고, 올해 고용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아직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세금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만 역부족이다. 정부는 지난해 직접 일자리 94만5000개를 제공했으나, 이 중 74만 개가 노인 일자리다. 충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에도 104만 개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만들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덜기 위해 우선 다급한 방도이기는 해도, 재정으로 떠받치는 일자리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고 한계 또한 분명하다. 근본적으로 민간기업의 관용은 일자리가 쪼그라들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 최악의 고용절벽을 넘기는 불가능하다. 기업활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말고는 달리 해법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기업규제 3법, 노동 관련 3법 등 기업 숨통과 민간 활력을 틀어막고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 한 킷



### 그래, 겨울엔 눈사람이지

폭설로 인해 서행하는 차량들 옆 인도에서 눈사람을 만드는 한 어린이의 모습이 정겹다. 서울 최저기는 18.6도, 20여 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와 도로를 마비시킨 잦은 폭설이 연초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올겨울 날씨가 아이들에게는 기다렸던 '겨울다운 겨울' 아닐까. 다행히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눈길 산책에 나서 보자.

신태현 기자 holijak@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 선한 영향력

= 마스크로 시간을 앞당기는 능력

마스크를 챙기는 오늘이  
그리운 일상을 하루 빨리 되돌리는  
'타임머신'이 될 수 있게

서로를 배려하는  
'선한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이 되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